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2.10	↑ 코스닥	718.29
	(+3.46)		(+0.33)
↓ 금리 (연이자율)	2.508	↓ 환율 (원/달러)	1449.85
	(-0.016)		(-19.85)



## 초개인화 vs 공감지능... 삼성·LG, 버티컬 AI 총망라

### 글로벌 IB, 게임여파 반영

### 올 韓 성장률 전망 평균 1.7%로 하향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에 게임여파에 따른 여파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 IB 8곳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1.7%로 내려왔다.

지난해 11월 말 평균인 1.8%과 비교해 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IB들의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3분기 수출 감소 탓에 10월 말 2.0%로 내려온 뒤, 12월 말까지 3개월째 하향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한 달 사이 JP모건이 1.7%에서 1.3%로, HSBC가 1.9%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8개 주요 IB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12·3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위축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국제 IB 8곳, 한국 성장률 예측치  
지난해 11월 말 대비 0.1%p 내려  
JP모건은 내수위축에 1.3% 예상  
내년에도 평균 1.8% 성장률 전망

게임 사태 이후,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감소하는 등 민간 소비는 실제로 부진의 늪에 빠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관세 인상 가능성 역시 한국 수출·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도 평균 1.8%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전례 없다. 이른바 '그냥 놔둬도 저절로 GDP가 늘다'라는 잠재성장률 2%에도 계속 못 미치는 시나리오다.

외환위기 당시 1998년 -4.9%에서 1999년 11.6%로 반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 0.8%에서 이듬해 7.0%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엔 2020년 -0.7%에서 이듬해 4.6%로 회복한 바 있다.

내년 예측치로,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각 2.1%, HSBC가 1.9%, 노무라가 1.8%, 씨티가 1.6%, 바클리가 1.5%, UBS가 1.3%를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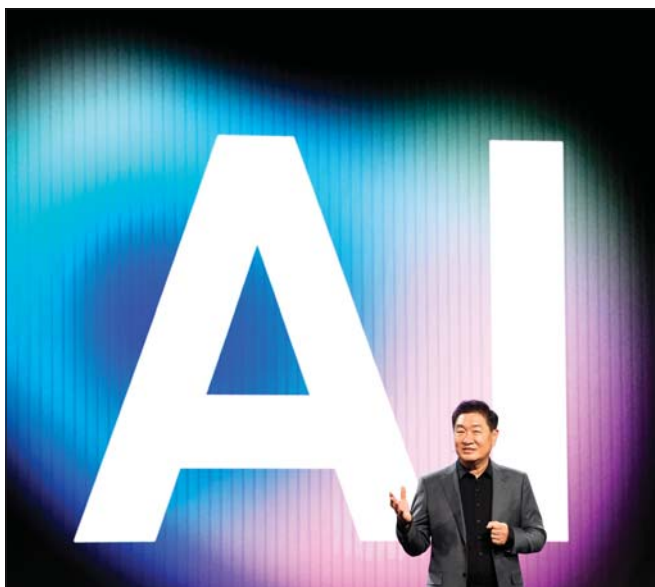
“몰입하라!(Dive in!)”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인 ‘CES 2025’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CES는 전세계 160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사상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10면>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올해 CES의 주제를 ‘몰입(Dive in)’으로 정했다. ‘기술로 연결하고(Connect) 문제를 해결하며(Solve)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Discover) 빠져들자(Dive in)’는 게 핵심 어젠더다.

올해도 CES는 인공지능(AI) 대전으로 꾸러졌다. 지난해 CES가 AI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더욱 구체화한 방향성과 함께 방대한 영역에 적용해 상품화한 버티컬 AI를 망라했다. 버티컬 AI는 거대언어모델(LLM) 등 범용 AI 기본 모델을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고도화한 AI를 의미한다.

올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인 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 초대형 규모로 부스를 꾸리고 CES 대표 테마인 ‘스마트 홈’을 선보였다. 스마트홈은 기존 사물인터넷(IoT)에 AI를 결합해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인 AIoT 기술을 이용해 집안 전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뜻한다.

◆삼성전자, 집안 기기 제어 AI 소개  
삼성전자는 CES 2025 개막에 한발



한종현 삼성전자 CEO 겸 디바이스경험사업부장이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기술 전시회에 앞서 삼성 기자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삼성, AIoT 플랫폼 ‘스마트싱스’  
이용자 정보 반영, AI 경험 구현

LG, MS와 전략적 파트너십 통해  
공감지능 통합 서비스 구현 추진

앞서 6일 ‘CES 2025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홈 AI 비전인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을 주제로 홈 AI 비전을 공개했다.

홈 AI는 A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삼성전자제품을 포함해 300개 이상 파트너사의 제품들을 스마트싱스 내 100개 이상의 제품들을 연결성을 강화해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반영한 AI 경험을 구현한다. 주거형태와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일상엔 물론 업무·여가 생활, 공간용도 및 사물까지 다양한 상황과 패턴을 구



조주완 LG전자 CEO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분해 초개인화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날 삼성전자는 공간 AI 기반의 ‘스마트싱스 앰비언트 센싱(Ambient Sensing)’ 기술을 소개했다. 앰비언트 센싱 기술은 연결된 기기들을 활용해 사용 패턴과 움직임, 주변 소리를 감지·분석한 것을 토대로 집안 정보를 요약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알림을 제공하고 기기를 제어하도록 제안해 더욱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다.

◆LG전자, MS와 AI 홈 기술 개발

LG전자도 같은 날 ‘공감 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Life’s Good)’을 주제로 월드 프리미어를 열고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총체적인 경험이야말로 공감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이자 다른 AI 기술과 구별되는 점”이라며 “LG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공감지능을 통해 총체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완 CEO는 총체적 경험을 구현하는 필수 요소로 ▲커넥티드 디바이스 ▲유능한 AI 에이전트 ▲통합 서비스 등을 꼽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홈 기술을 더욱 고도화, 진화시킬 예정이다. LG전자가 집, 차량, 상업용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보유한 제품과 연계되는 고객 인사이트에 MS의 AI 기술을 결합해 공감지능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며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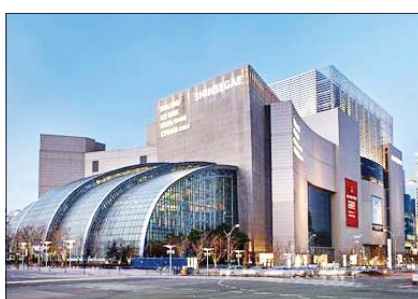
## 면세점도 불황 그림자... 신세계免 부산점 폐점 수준

유커·파이공 줄고 경제불황 가중  
신세계免 부산점 특허권 반납 검토  
롯데 비상경영 등 업계 전반 위기감

면세업계 전반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이 부산점 폐점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7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권 반납을 검토 중이다. 면세점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유커와 중국 보타리상인 파이공의 방문이 줄고, 경제 불황이 가중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권 반납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신세계

검토 중”이라며 “관광객이 줄고,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브랜드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식적으로 폐점 공문을 내린 적 없다”며 “아직 특허권 반납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폐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점은 기정사실화라는 업계 분석이다. 신세계면세점의 특허권 반납 신청서 받아들여지면, 관세청의 심의 및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신세계면세점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면세 사업은 코로나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 허가받은 영업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점 수준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오는 2026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상태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1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어 12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운영 요일을 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불황에 따른 사업 축소 기초를 보였다.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면세업장 매각 수준까지 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면세사업 불황의 모습이 신세계면세점 뿐만 아니라, 면세업계 전반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발렌티노가 철수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6월 롯데 자회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8월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지 2달 만이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메트로 한줄뉴스



▲ 민주, 최 대행 ‘직무유기’ 고발... “대통령경호처, 상설특검 방치” /사진 뉴시스  
▲ 현재 사무처장 “재판부,尹 내란죄 제외 권유 사실 아냐”

▲ 국힘,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고발  
▲ 경찰,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10일 3차 출석요구

▲ 홍준표 “내란죄 철회...尹·한덕수 탄핵 모두 기각해야”  
▲ 최 대통령 대행 “北 도발,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



# 美, 오바마 케어 폐지 예고... 中, 고령화 대비 '장기요양' 강화

## 요동치는 글로벌 보험시장

“국가도 국민도 돈 많이 드는 보험”  
美 트럼프, 건강보험 개편 예고

中, 녹색금융 등 보험 5대과제 발표  
도심 요양 커뮤니티 운영사업 급증



Chat GPT가 생성한 글로벌 보험시장 이미지.

전통적 보험 선진국인 미국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보험산업 새판짜기에 돌입하면서 올해 글로벌 보험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보험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1기 행정부에 이어 이번 2기에서도 기존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바마 케어는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가입 확대를 골자

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함한다.

### ◆트럼프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

앞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줄곧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도 ACA를 폐지하고 ‘훨씬 더 나은 의료보장’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는 ACA에 대해 “국가도 국민

도 돈이 많이 드는 형편없는 의료보험”이라며 “나는 더 나은 개편 계획에 대한 콘셉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공적 건강보험의 지출 감소에 나선다. 공적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자금 조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촉구를 위해 메디케어 자격 및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최근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수장으로 전문의 출신 메넷 오

즈를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CMS는 ACA를 포함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업무를 담당하는데 메넷 오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망가진 의료 시스템은 일상적인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가 예산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오즈 박사는 질병 예방을 장려하는 리더가 되어 의료에 지출하는 모든 달러에 대해 세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장기요양서비스 체계화

중국은 향후 5년동안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산업의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금융 ▲녹색금융 ▲포용금융 ▲연금금융 ▲디지털금융 등 5대 핵심영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보험사들은 요양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제적

으로 발달한 도시에 요양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보험+요양’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요양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의존해 집에서 노인들에게 생활 돌봄, 가사 서비스, 재활 돌봄, 정신적 위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의 한 형태다. ‘보험+요양’ 전략은 ‘보험상품+요양 커뮤니티+전문 서비스’라는 종합 솔루션을 통해 보험과 요양 커뮤니티를 연계해 보험을 구매할 경우 요양 커뮤니티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정수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요양 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는 중국인수보험, 태강생명, 태평생명, 태보생명, 평안생명, 신화보험 등이 있다”며 “초기에는 요양 커뮤니티를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했으나 최근에는 자녀 방문의 어려움이나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중심부에 요양 커뮤니티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10일부터 유가족들에 긴급생활비 지원”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참사 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꼼꼼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0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관리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 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외국인직접투자 346억 달러 ‘역대최대’

산업부,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첨단산업·소부장 중심 5.7% 증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첨단산업과 소부장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일본·중국발 투자 증가가 이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5억 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144억 9000만 달러(+21.6%)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전기·전자(52.6억 달러, +29.4%), 기계장비·의료정밀(23.5억 달러, +174.0%), 의약(7.1억 달러, +113.2%) 등 업종에서 투자액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투자 역시 전년 대포 소폭(0.3%) 증가한 178억 3000만달러다.

국가별로는 일본(61.2억 달러, +

375.6%), 중국(57.9억 달러, +266.1%)으로부터의 투자가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 EU(유럽연합)의 투자는 각각 52억 4000만달러(-14.6%), 51억 달러(-18.1%)로 줄었다. 미국, EU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역기지효과와 함께, 지난해 미국과 EU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 달러(+13.5%)를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고, M&A 투자는 78억 6000만 달러(-14.5%)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으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등 국내 제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투자가 많았고 실제 공장을 신증설하는 그린투자가 많았다”며 “이런 부분이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호텔롯데 “잠실 월드타워점 매장 축소”

>> 1면 ‘면세점도 불황...’서 계속

호텔롯데는 면세사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기업설명회에서 “해외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 가운데 경영 상태가 부실한 점포 철수를 검토하고, 롯데면세점의 주요 매장 중 하나인 잠실 월드타워점의 매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라면세점도 면세업계 불황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D C신라면세점은 지난 2일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9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사모 형태로 발행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새해부터 자금 수월

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길거나 없으며, 상환 의무가 유연하지만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다.

신라면세점은 코로나 이후 실적 반등에 실패하며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신라면세점은 3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 163억원 대비 적자폭이 224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불황은 거시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은 다른 면세업장들도 남의 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작년 韓기업 해외 플랜트 수주 341억 달러

산업부, 2년 연속 300억 달러 넘어  
전년 203.3억 달러 대비 12.7% 증가

해외 플랜트 수주 금액이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주력 시장인 중동 외에도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플랜트 진출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작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한 금액이 총 340억 7000만달러(약 50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02.3억달

리)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2015년 364억 7000만달러 이후 9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수주액 중 46%인 155억 2000만달러는 우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으로, 2022년 11월 이후 중동 국가와의 고위급 경제 외교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사우디 파달리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그램(73억달러)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역대 해외 프로젝트 중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191억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다.

또 작년 11월 삼성물산이 수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복합 발전소’(28.4억달러)는 국내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국내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지난해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중동 중심의 수주에서 벗어나 플랜트 진출 시장을 한층 다변화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차별·혐오 부추기는 사회 공정·도덕 가치 되새겨야



/유토이미지

## 양극화 수렁 - 젠더·세대·빈부격차

한국은 갈등 사회다.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도태남, 쿡방이, 토착 왜구, 임겨, 틀딱, 잼민이...' 넘쳐나는 혐오 신조어 표현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인들은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극도로 경멸하게 됐을까. 저주 괴물들은 증오 정치의 산물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정치 쇼맨들은 갈라치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두 개로 쪼갰다. 그 결과 이제 여성은 남성을, 남자는 여자를 적대시한다. 어른들은 젊은이를, 2030세대는 노인을 싫어한다. 빈자는 부자를, 기득권층은 취약계층을 미워한다. '결자해지'란 말처럼 일을 저지른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 정치인들이 젠더, 세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해본다.

### 정치권, 갈라치기 정책 만연 통합이 어려운 극단주의 확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 ◆ 성평등 정책, 이념적 정체성 강화 필요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셜·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 책자에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여성·페미니스트에 관한 혐오 표현'의 사례로 수록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주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등을 쏟아내며 젠더 분열을 가속화했다. 실제로 2022년 20대 대선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표를 던진 20대 남성 비율은 58.7%로, 여성(33.8%) 대비 24.9%포인트 높았다. 30대 역시 여성(43.8%)보다는 남성(52.8%)이 그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권이 바뀐 후 윤 대통령 휘하 성별 갈라치기 정책은 현재까지도 착실히 진행 중

이다. 여가부 수장 자리가 작년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후 약 11개월째 공석 상태인 게 대표적인 예다.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퇴행의 젠더 정치' 논문에서 "현재 직면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롯해 성평등 정책의 축소와 삭제, 반페미니즘 환경은 민주주의 퇴행의 전형적인 징후라 할 수 있다"며 "제20대 대선을 전후해 증폭된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별 임금 격차나 낮은 여성의 대표성 등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 지표들이다"며 "구조적 성불평등의 양상을 노동, 정치, 폭력, 일상문화 등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의제화해 성평등 정책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 세대 갈등, 파이 싸움 벗어나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마태복음서 26장 52절)

성경에서 예수가 한 말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겨 흥한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를 계기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은 '틀튜브' (나이 든 사람이 보는 자극적인 극우 유튜브 콘텐츠를 비하하는 용어)를 보고 계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비판하면서 탈당 러시로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고, 노인들은 '준빠' (이준석 팬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의 선동에 넘어가 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겉보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정된 복지 재원에 있다. '준빠'라는 멸칭이 붙은 젊은 여당 지지자들과 '틀딱'이라고 조롱받는 고령층은 그간 부족한 연금과 일자리를 두고 다투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갈등 폭발의 기폭제가 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 문제에 시달려온 정부는 2030세대에 불어 노인들에게 연금 삭감 및 수령 시기 지연을 요구했고, 고령층은 이에 저항했다. 또 정치권

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보다는 고령자들의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동족방뇨'식 정책을 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자신의 파이를 빼앗아 갔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정책연구소 소장이자 공공정책학 교수인 바비 더피는 특정 연령 집단의 지지에 의존하는 정당의 추세는 정치 전반에 위험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쪽에서 일정 인구 집단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편은 줄어드는 상대의 지지 기반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의 극단주의를 과장하는 반응을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상대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확대되면 각당은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의 양극화를 피하는 절충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바비 더피는 저서 '세대 감각'에서 "정치의 위기를 부른 건 특정 세대가 아닌 '세대 분열에 기생하는 정치'라며 "갈라치기 정치는 통합이 어려운 극단주의를 확산시킨다"고 말한다.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레졸루션재단은 정당 지지에서 '세대적 고착 상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당은 젊은 유권자, 보수당은 나이 든 유권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양쪽 모두 다른 연령층의 표를 획득하는 데 심각한 제약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세대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세금 인상 없이 기존 복지 국가를 유지할 방안을 강구해 제로섬 성격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조언한다.

#### ◆ 부에 상한선을 긋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46.6%가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고 답했다.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은 16.6%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정부는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과 각종 세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 중이

다"며 "이번 조사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배당 증대 기업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있다.

연구소는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 이동성의 선순환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57.4%가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비율도 68.2%에 달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비율은 21.4%에 그쳤다.

### 유불리만 따지는 기형적 구조 연금개혁 등 '결자해지' 필요 "도덕적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인 잉그리드 로베 인스는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 격차, 부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 상한선을 긋는 '부의 제한주의' 정책을 제안한다.

로베 인스는 "극단적인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 두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면서 "우리는 안정성 있고 좋은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자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불운한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동심자각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시스



# “불확실성 장기화, 경제 손상 우려… 정책 리더십 절실”

인터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탄핵 정국이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의 측면이 크고, 불확실성이 조기 해소된다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권남훈(55) 산업연구원장은 6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이 경제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면서도 “그 자체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과거 2차례의 탄핵 과정에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출렁였고, 소비자 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 탄핵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회복됐다”며 “하지만, 산업생산지수나 소매판매지수 등 실물지표는 탄핵 과정 내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불확실성 해소, 경제 영향 최소화 심리적 악화에도 실물경제 안정 유지 정책 불안·결정 차질 초래할 위험 트럼프 2기·글로벌 보호무역 전쟁**

그는 “다만 경제 펀더멘탈이나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대내외적 경제 불안 요소가 크고, 탄핵안 통과에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정국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석 역시 결국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과정에서 경제환경이 얼마나 손상을 입는지 여부에 대해 해외 투자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쉽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 혼란 상황 자체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경제정책을 정치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리더의 공백은 당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의 안정성 상실이나 주요 의사결정의 차질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며 “특히 현재는 트럼프 2기 출범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상황의 급변을 맞아 신속하고 책임있는 정책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경제정책 당국을 비롯한 행정부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권남훈 원장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 속에서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국내외 여건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5일,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1%, 수출 증가율은 2.2%로 전망했다. 이는 아직 불확실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추가로 12월 이후 벌어진 정치적 불안정 상황 등 여파에 따라서 전망치를 더 낮춰야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내세우고, 강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양자적·일방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상대국에 10~20% 보편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최혜국 대우 철회, 필수품 수입 축소, 대중국 투자심사 강화, 민감·핵심 인프라 관련 자산매각 요구, 연방조달계약 배제 등 다양한 고강도 정책이 예고된 상황이다. 추가로 만약 각국이 보복관세 등 국제적 보호무역 전쟁에 나서거나, 중국의 제3국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우리 업체들이 추가적 피해를 입으면 경제성장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치 상황의 혼란은 전례로 볼 때 그 자체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만약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경제정책 거버넌스의 지속적 불안으로 이어지면 역시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

**- 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중국과 미국에 집중된 수출입 지역과 품목의 다각화 및 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FTA 개정, 수출 쿼터 축소, 수출자율규제 등 압박에 나설 것이다. 현재 한국의 수출입은 품목과 지역 측면에서 상당히 집중된 구조여서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적자를 축소하고, 대중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신규 수출시장 발굴을 통한 수출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또는 China +1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 수입에서 한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을 분석하고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 산업별 영향은 어떤가.**

“지난 몇 년간 대미 수출액이 급증하고 2023년 28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압박이 어떤 형태로든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철강, 이차전지 등도 정책변화의 형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와 IRA 보조금의 취소, 철강은 관세 부과나 쿼터 축소, 이차전지의 경우도 보조금 철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타 국가에 대한 통상 압박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크기는 당장에는 크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보다는 중국과의 미래 경쟁에서의 교두보 확보가 가능하다면 긍정적일 것이다.”

**- 산업별 대응 방향은.**

“조선산업은 협력 기회가 높아 보인다. 특수선 MRO(유지·보수·운영)뿐 아니라 국내 수주 생산 기회 확대, 인력교류, 조선기자재 수출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철강은 232조 개정 및 무역규제조치 강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기계산업은 친환경 정책 후퇴로 인한 일반기계 업종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수출부진 상황에서 국내 내수와 투자 촉진을 통한 보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캐즘과 해외로의 생산이전으로 인한 상황 등을 보완하는 전기차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현재 타격을 입고 있으나 미래 중요성이 큰 분야에 대해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 한국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경제와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대결 구도 하의 신산업정책 패러다임 도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규제 강화, 디지털·AI(인공지능) 전환과 빅테크 중심의 산업 주도권 재편 등이 이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성장동력 상실과 더불어 복지비용 상승, 국가부채 누적으로 인한 재정여력 악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무역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자체 내수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확산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내수와 수출 환경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도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기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 복합 위기라는 진단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방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경제·산업·인프라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과 개혁이 필요하다. 예컨대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개혁,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여성과 고령자 등 인적자원 배치를 효율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 노동 및 교육개혁,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디지털·AI 전환의 가속화 등이다. 이런 개혁들은 그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과제였지만 속도와 범위가 미흡했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

**-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은 어떤가.**

“한국의 주요 산업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수요 기반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계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안정성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의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등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술 초격차 유지, 설계·서비스 융합 역량 향상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 당장 통과가 필요한 현안 법률뿐 아니라, 십수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신산업 정책의 융합적 추진체계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효과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등 정비가 시급한 제도들이 산적해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수출구조 다변화 주요 산업, 압박 요인 새로운 기회 복합위기 시대, 경제체질 강화 필요 산업연구원 조직개편·정책 지원 강화**

**- 한국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 산업은 과거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둔화하고, 주력산업구조가 고착화되며 신산업 창출이 미진한 상태다.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과 산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올해 산업연구원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어떤 의미인가.**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종합적 전략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근거에 기반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산업연구원이 앞장서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업종 및 기능 중심의 연구조직을 인구감소 전환,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AI 전환 등과, 경제안보 전략, 신성장동력 발굴, 지역경제정책 개발 등을 각각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꿨다. 현재 주력 제조업에 편중된 연구 기반을 서비스 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정책당국 및 기업과의 연계·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시의성 있고 데이터 및 최신정보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생산해 내고자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권남훈(55세) 산업연구원장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경제사회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작년 9월 산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모두의 소원을 모아 만들어가는 다음 시대 K-AI  
**KT의 여정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강지한 님의  
아이디어

새해 다짐을  
지키는 만큼  
자라는 화분

박세미 님의  
아이디어

어느 곳에서나  
해돋이를  
보여주는 창문

박민주 님의  
아이디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씩  
어려지는 숟가락

최윤정 님의  
아이디어

매일 잠들기 전  
하루 일과를  
정리해 주는 침대

강지민 님의  
아이디어

새학기 공부할 때  
잠을 깨워주는 책상

김주원 님의  
아이디어

작심삼일을  
막아주는 운동화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팬메이드  
K-AI 아이디어  
챌린지





# 오동운 “2차 영장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사위 현안질의서 대국민 사과  
“예측 못한 부분 많아… 책임 통감  
내란 우두머리죄 등 영장 재신청해”  
국민의힘, 탄핵소송 내란죄 제외 지적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오 처장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

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의 격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물음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

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각오를 말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

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했다”면서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라고 오 처장에게 물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 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전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를 확실하게 잡아오라”고 주문하자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사유 중

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송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의 거의 80퍼센트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수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 후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가로막았다.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헌재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담당하는 형사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오늘 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부결 당론 유지” vs 野 “반대 시 내란동조”

거부권 행사한 ‘농업4법’ 등도 실시  
與,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반대 고수  
野 “내란 진압 위한 특검 출범 시급”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하는 법안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 처리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었고, 그래서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 유지로 보된다”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

반에 관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러한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론을 유지하며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의 담긴 수사 범위 중 여당 정치인이다 수 관계돼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도 담겨 있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상욱 의원은 내란 특검법안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관 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자초하자 내란 일반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내일 국

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이나 위헌정당이나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등 운영 일정 확정

기관보고, 현장조사 등 안건 처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의 청문회, 각 두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를 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기관 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청문회 실시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1월 14~15일 1~2차 기관 보고를 실시한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에 열린다. 현장

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2월 13일까지로,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마치고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2차 기관보고에 채택된 증인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여야 특위 위원간 이견은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

은 내란이고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하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양고 없는 썩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특위 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시는데, 뺐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르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 민주당, ‘崔대행 탄핵’ 대신 직무유기 고발

“내란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 방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신 고발을 선택한 것은 ‘연속 탄핵’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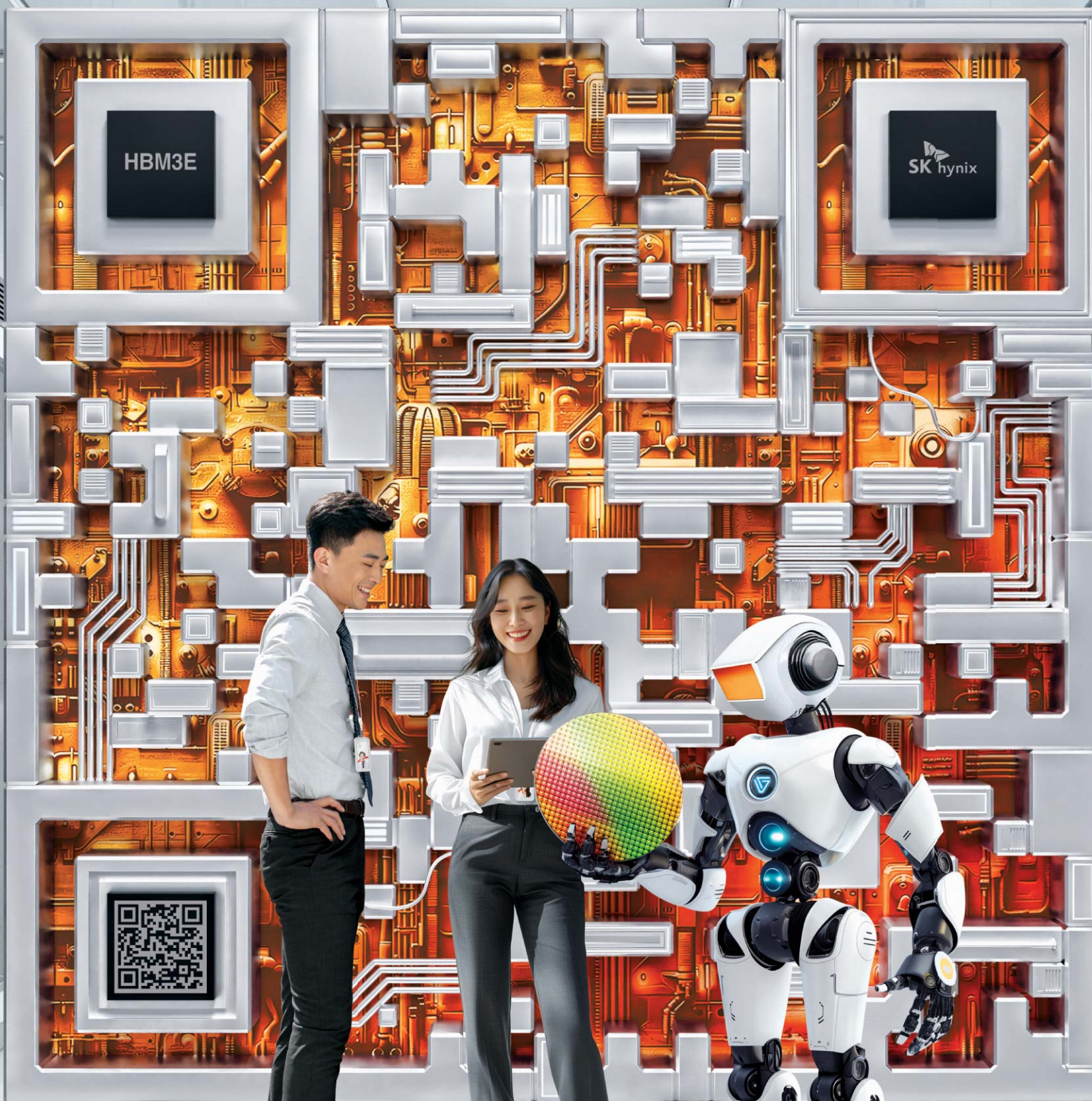
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건대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극복특위는 ‘계엄 예비비 폭주’ 의혹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해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KB라이프생명 정문철號... 고객 중심 질적성장 변화 시작

KB라이프생명 2.0시대 도약 주목  
고객중심 생각·문화·성장 등 제시  
혁신상품본부 편제로 경쟁력 강화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전환 가속화  
2부문 15본부 43부서로 조직 슬림화

KB라이프생명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초석을 다진 이환주 대표가 은행장으로 옮기고, 정문철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서 'KB라이프생명 2.0 시대'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지난 12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을 신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정문철 대표의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KB국민은행 재무기획부장, 전략본부장, 경영기획그룹대



정문철 KB라이프생명 신임 대표이사.

/KB라이프생명

표, 중소기업고객그룹대표, 개인고객그룹대표 등을 역임한 전략·기획 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정 대표의 2일 취임사에서 통합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취임사에서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KB라이프생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자"며 "KB라이프생명 창립 3년차를 맞아 통합을 넘어 고객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가지 경영 방침으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 ▲고객 중심 경영이

프로세스와 문화로 정착 ▲고객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질적으로 변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대표는 기존 KB라이프생명을 이끌어온 이환주 초대 대표이사 체제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KB라이프생명은 지난달 ▲수익성 기반 시장지배력 확대 ▲보험상품 제조 역량 강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책임경영 기반 조직 설계 등 4대 핵심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전 2024년 이환주 체제에서 이뤄진 조직개편보다 한층 더 심화했다.

이전 KB라이프생명의 조직개편은 ▲고객-상품-채널(CPC) 전략 강화 ▲미래 성장기반 확보 등 2가지 전략방향으로 이뤄졌는데 올해는 4대 핵심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이환주 대표가 신설했던 'CPC 전략부문' 산하에 '혁신상품본부'를 새롭게 편제했다. 기존 ▲상품본부 ▲영업전략본부 ▲고객

지원본부와 함께 혁신상품본부를 신설해 고객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혁신상품본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신사업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요양자회사 KB골든라이프 케어를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니어웰니스추진파트'도 신설했다.

기존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도 단행했다. 새로운 조직 설계 재편으로 기존 2부문 16본부 48부서 체제를 2부문 15본부 43부서로 새롭게 정비해 조직을 슬림화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객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국민은행, 中企·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1050억 신용보증 특별출연 집행  
15.1조 규모 설 명절 금융지원도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 특별출연 조기집행, 설 명절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약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

원대상은 창업 5년 이내의 데스밸리 기업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기술력 보유 소상공인 등 취약 중소기업과 핵심전략산업 중소기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자보전대출 포함)과 연계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KB소호 컨설팅 서비스 지원 기업 ▲KBESG건설 지원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 센터 입주 기업 ▲KB 굿잡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신규 인력채용 기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4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설 명절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으로, 최대 1.5%포인트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KB국민은행은 금융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l@

## 우리은행-토스, 자녀 용돈계좌 서비스

미성년자녀 명의 계좌 개설·관리  
토스 앱 통해 송금·출금내역 조회

우리은행이 토스 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 고객들은 토스 앱의 '용돈관리 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손쉽게 용돈을 넣어 줄 수 있다. 이에 자녀 고객들은 받은 용돈을 토스 앱에서 송금·출금 등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처음으로 핀테크 기업의 앱 안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토스와 제휴를 통해 토스 계좌 이용

을 원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 고객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금융교육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자녀 계좌 개설 ▲자녀 용돈 송금 ▲용돈 송금 내역 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제휴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3월 말까지 자녀 계좌를 개설한 경우 ▲부모에게 1만원 ▲자녀에게 5000원 토스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스와 함께 미성년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라며 "앞으로 미성년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유익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탄핵정국에 분양시장 쏠쏠... 서울원 아이파크도 '쭈쭈'

경기·인천 등 수도권 줄줄이 미분양  
서울원 아이파크 오늘 무순위 청약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분양시장이 얼어 붙고 있다. 불확실성 확대에 이미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는 줄줄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으로 완판이 보장됐던 서울에서도 계약포기로 소위 '쭈쭈'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나왔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통해 들어서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오는 8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번 청약은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6개 동, 총 1856가구 규모다. 이번에 나온 무순위 청약은 558가구로 전체 물량의 30%에 달한

다. 계약포기가 이어지면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미계약 세대다.

면적별로는 전용 105㎡(126가구), 112㎡(127가구), 120㎡(162가구) 등 중대형 면적이 444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형으로는 전용 74㎡(3가구), 84㎡(111가구) 등이 남았다.

당초 지난해 11월 실시된 청약에서는 3만명 가까이 몰리며 일부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는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490세대 모집에 7388건이 접수됐다. 일반공급에서도 1414세대 모집에 2만1100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데다 지난해 계약기간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 대출 조이기까지 겹치며 대거 미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

된다.

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분양가는 74㎡와 84㎡가 각각 12억1400만원, 14억1400만원이며, 105㎡는 16억3200만원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호텔과 쇼핑몰까지 들어서면서 기대감은 높지만 노원구에서는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쭈쭈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재당첨제한이나 거주무기기간 등은 없으며, 전매제한 1년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 등 외곽부터 분양 단지들이 대거 청약이 미달되는 등 청약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이달 분양 시장은 올 한 해 분양 시장의 흐름에 대한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기업 ERP시스템 연계 자금관리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 출시  
거래내역 조회, 해외송금 등 이용

신한은행이 기업 ERP시스템 연계 자금관리서비스 '뱅크인(Bank-In)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는 기업고객이 은행 기업뱅킹에 접속하지 않고도 회계, 물류, 재고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ERP 시스템에서 계좌조회, 이체, 입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급여이체, 해외송금 및 국내외화 자금이체 등이다.

'뱅크인 플랫폼'은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계좌잔액을 집금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ERP 회계장부에 등록돼 있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출금하는 경우 거래내역 및 이체 결과를 회계장부에 자동 반영한다. 별도로 은행 기업뱅킹에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수수료도 없다.

신한은행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는 핑거의 ERP 시스템 '파로스 ERP'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ERP 전문기업들과의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기업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기업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한은행은 기업뱅킹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조선업계 ‘슈퍼사이클’ 훈풍… 빅3사, 동반 흑자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친환경선, MRO 등 경쟁력 강화  
글로벌 추가 수주 가능성 커져  
“수익성 개선 흐름 이어질 것”

국내 조선업계가 본격적으로 높은 수요와 실적을 기록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특히 국내 조선 빅3(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13년만에 동반 흑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빅3는 지난해 연간 기준 동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선 3사의 동반 흑자는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3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 전망치는 45조640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36조7139억원) 대비 24.3%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4207억원을 기록할 것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

라고 전망했다. 전년 동기(2823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각각 1567억원, 4747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별 수주 물량을 본격적으로 납품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 업계의 실적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이전 수주한 저가 선박의 납품이 마무리 되면

서 선별 수주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205억 6000만 달러(약 30조2396억)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135억 달러)의 152.2%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73억 달러(약 10조7368억)로 수주 목표(97억 달러)의 75%를 달성했다. 한화오션 역시 88억6000만 달러(약 13조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HJ중공업도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수주액을 달성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조선부문에서는 1조 750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22년 수주액 대비 150%, 2023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미국과 인도 등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방국인 한국과의 조선 동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0척 수준으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 ‘윌리 쉬라’함과 ‘유콘’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 함정 2척의 MRO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향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수선 분야 라이벌인 HD현대중공업도 채비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MRO 사업에 뛰어들다. 시장조사 업체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는 현재

약 85조원인데 미국만 22조 원에 육박한다. 두 회사는 지난해 7월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 RA)을 체결하며 미국 MRO 사업 진출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 인도 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국내 조선3사의 사업장을 방문해 양국의 조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전 세계 5위권 조선업 국가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현지에 조선 건조·유지보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500척가량인 선대를 향후 25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대형 슈퍼사이클이 업턴(상승)을 끝내고 하향곡선에 진입해야 하지만 러-우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물동량이 고착화되면서 여전히 조선사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3~4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실적 상승세도 지속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덩치 커진 中 배터리기업… 韓, LFP 등 차별화 기술력 대응

배터리3사 LFP 시장 본격 진출  
경량화 등 기술 경쟁력 앞세워

전 세계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국내 배터리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초과 생산 물량을 신흥국에 확대 판매하여 대응 중이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저가형 모델과 하이브리드 등 사업 전략의 다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1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약 785.6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19.8%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중국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LFP(리튬·인산·철)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어 실질적 성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 늘면서 국내 배터리사의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경쟁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GM,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기업들은 중저가 라인업에 LFP 배터리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FP 배터리는 NCM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보다 평균 20~30%가량 저렴하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LFP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



삼성SDI의 LFP+ 배터리 /삼성SDI

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은 LFP 관련 특허 출원에서 전체 63%에 달하는 4695건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11%), 유럽(9%)과 한국이 약 10% 비중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한국은 특허의 질적 경쟁력과 기술적 도약을 통해 시장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원재료 수급에서 오는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프랑스에서 르노와 전기차용 파워칩 LFP 배터리 공

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말부터 5년 동안 약 39GWh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순수 전기차 약 59만대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돼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한다.

삼성SDI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ESS(대용량저장장치)용 LFP 배터리 개발에 들어갔다. 특히 삼성SDI는 LFP 배터리 경량화에 집중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SK온은 지난 2023년 3월 배터리 3사 중 제일 먼저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했다. 2026~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중저가 시장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롯데렌터카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렌터카 부문 21년 연속 1위

롯데렌터카가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21년 연속 렌터카 부문 1위를 기록했다.

롯데렌터카는 렌터카 부문에서 올해로 21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범위 확장이 수상에 주효했다.

롯데렌터카는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기사포함렌터카를 선보였으며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래핑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 기존 장기렌터카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차량 정비 서비스가 자사 고객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롯데렌터카는 사업자 고객을 위해 차량 래핑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9월 차량방문정비 서비스인 ‘롯데렌터카 차방정’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다. /양성운 기자

# 에어서울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에어서울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에 참가한다.

에어서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문화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가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발 인천 노선 항공권을 정가 대비 최대 94% 할인된 금액에 선보인다.

이번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의 판매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다. /양성운 기자

# 휴맥스모빌리티, 중소 렌터카 파트너사 협력 강화

유류 차량 공유… ‘매출·환경’ 두토끼

휴맥스모빌리티의 카셰어링 브랜드 투루카가 중소 렌터카업체와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7일 투루카에 따르면 이 회사는 대규모 차량 구매 대신 전국 180여 개 파트너사의 유류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해 파트너사 매출 약 101% 증가와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기존 카셰어링 기업들의 독자 성장 방식을 탈피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은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형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투루카파트너사들의 운영 차량은 1524대로, 전년 동기 896대 대비 70% 증가했다. 수도권 88개를 비롯해 강원도 13개, 경상도 32개, 전라도 17개, 제주도 2개, 충청도 28개

등 전국 각지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투루카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에는 투루카의 ‘원스톱 비즈니스 솔루션’이 있다. 렌터카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은 ERP 시스템 ‘카프리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4시간 컨택센터 운영과 전담 슈퍼바이저 배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실시간 차량 제어와 관제, 비대

면 모바일 스마트키 등 첨단 기술인 차량관리시스템은 파트너사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투루카의 상생 모델은 환경적 가치 창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1대 생산 시 약 5.6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기존 차량을 활용하는 투루카의 방식은 불필요한 신차 생산을 줄여 연간 수천 톤의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파트너사와 함께 전기차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자율주행·가정용 로봇까지... AI의 진화, 이제는 '로보틱스'

## 챗GPT 시대, AI·로봇의 만남

삼성·LG, 가정용 AI 로봇 출시 예고  
엔비디아, 물리적 AI 대중화 추진  
중국 기업들, 플라이어봇 등 AI 공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이정표가 로봇으로 향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로봇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진출을 예고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연내 가정용 AI 로봇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6일(현지시간) 미국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물리적 AI 기반 플랫폼 '코스모스(Cosmos)'를 처음 공개했다. 코스모스는 개인용 슈퍼 컴퓨터(프로젝트 디지트)와 함께 젠슨 황이 직접 공개했다.

젠슨 황 CEO는 "코스모스는 물리적 AI의 민주화를 촉진해 모든 개발자가 일반 로봇 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며 "우리는 물리적 AI를 대중화하고 모든 개발자가 범용의 로봇 공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코스모스는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등이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 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앞서 5일(현지시간) 가진 프라이빗 쇼를 통해 AI 집사 '볼리'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2000만 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14일만에 처리할 수 있다. 중앙처리장치(CPU)만을 이용할 경우 해당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년에 달한다.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은 개발자가 기존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사실적 물리 기반 합성 데이터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 코스모스 WFM을 이용해 각종 데이터를 미세 조정해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다.

젠슨 황은 "로보틱스를 위한 챗GPT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코스모스는 물리 AI를 대중화하고 모든 개발자가 일반 로보틱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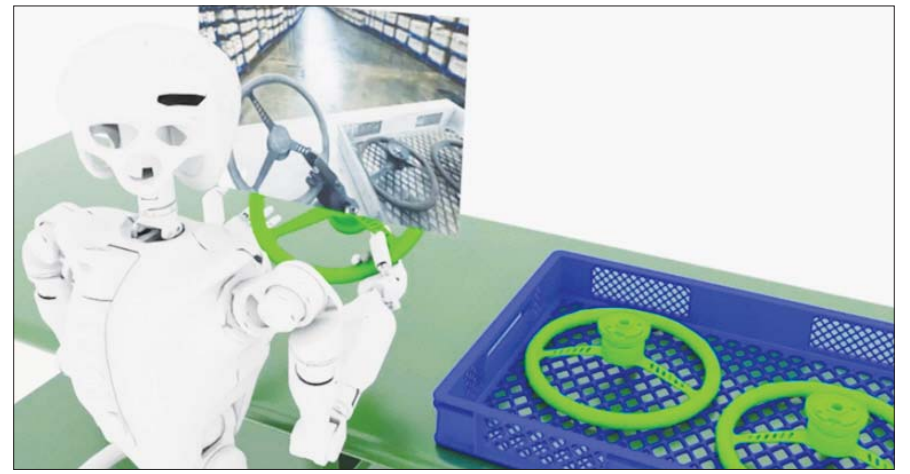
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모스 모델은 로보틱스와 AV 커뮤니티의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픈 모델 라이선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다른 기업들도 AI를 탑재한 로봇을 대거 공개하고 연내 출시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AI 집사 '볼리'를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며 LG전자는 AI 허브 'Q9'을 연내 상용화 한다고 밝혔다. 볼리와 Q9은 CES 2024에서 최초 공개됐으나 고도화 작업으로 출시가 다소 미뤄졌다.

삼성전자의 볼리는 반려동물처럼 사람을 따라 다니며 명령을 수행하는 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이 로봇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모습. /엔비디아

정용 AI 로봇이다. 연내 출시될 LG전자의 Q9 또한 집안 내 가전 및 IoT 기기들을 연결, 제어하는 이동형 AI 허브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로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물론 고객의 명령을 알아듣고 수행한다. LG 전자에 따르면 Q9은 집안 가전들의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공기질, 옷 상태 등까지 확인해 관리한다.

중국 업체들도 로봇들을 대거 공개했다. 중국의 위스노로보틱스도 인간 근육과 비슷한 소프트 근육 로봇에 AI를 결합한 '플라이어봇'을 선보였다. 중국 업체 TCL도 AI 로봇 '에이미'를 공개했다. 반려동물처럼 아이와 함께 노는 '에이미'의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스펙이나

세부 기능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중국 가전회사 하이센스는 지난해 9월 'IFA 2024'에서 AI 로봇 '할리'를 전시한 바 있으며 올해 CES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할리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로봇청소기로 잘 알려진 중국의 로보락도 이번 CES에서 로봇 흡어 시스템 '로보락 사로스 Z70'을 처음 공개했다. 이 로봇은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기계식 로봇 팔 유니그립을 탑재한 로봇청소기인데, 슬림한 본체에 장착된 로봇 팔이 양발, 수건 등 최대 300g 이하의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길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AI·IoT로 혁신하는 반려동물 기술 경쟁

삼성, 진화한 반려로봇 '볼리' 공개  
크림오프, 건강 관리 솔루션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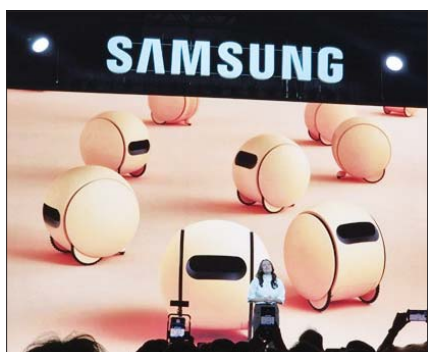
국내 산업계가 올해 CES2025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영역을 한층 강화한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에 접목된 반려동물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려로봇을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큰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한층 더 진화한 반려로봇 '볼리'를 공개하며, 올해 상반기 출시 계획을 밝혔다.

볼리는 노란 공 모양으로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또 집 안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조절하거나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집사 역할을 한다.

볼리는 이용자의 패턴을 계속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20년 CES에서 볼리 콘셉트를 처음 공개했다. 이후 2024년 CES에서는 이용자의 일정을 알려주거나 음식 레시피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쏘 보여주는 모습을 시연했다. 볼리는 세계 최초 원·근접 투시가 모두 가능한 듀얼렌즈 기술 기반 프로젝터를 탑재해 벽, 천장, 바닥 어디든 최적의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CES 2025에서 한층 더 진화한 반려로봇 '볼리'를 공개했다. '볼리'는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었다.

브레인유는 CES 2025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려동물 뇌파 기반 마취심도 측정기 'VETCAI'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반려동물 의료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 기술은 세계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VET CAI는 브레인유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려동물 마취심도 측정기로,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취 중인 반려동물의 마취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털이 많고, 다양한 품종과 두상 형태로 인해 뇌파를 통한 마취심도 측정이 어려워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혈압, 심박수 등 간접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마취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이다.

VET CAI는 이러한 동물 뇌파 측정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비침습적이고 무제모 방식으로 반려동

물의 마취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모니터링하여 마취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반려동물 기술 기업과 협력해 생체 임상신호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장비를 개발해 CES 2025에서 인정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도내 동물분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에이치알지가 반려동물 기술 및 동물복지 분야 CES 혁신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에이치알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우용(牛用) 웨어러블 생체 임상신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축종별 심박, 호흡, 사료섭취량 등 생체 임상신호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장비다.

이 장비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하여 우유(乳牛)와 육우(肉牛)의 심박수, 호흡수, 사료취식량, 반추량, 발정기, 활동량, 파행, 증체량 등 생체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 질병이나 감염을 감지하고 농장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경제적 이익 창출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팻케어 솔루션과 SaaS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중인 크림오프는 CES2025에 참가해 자사의 AI(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건강 관리 솔루션과 관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광용적맥파(PPG)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 지표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성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 자율주행차·AI로 혁신적 스마트 도시 구축

토요타 '우븐 시티' 1단계 완공  
"친환경 등 설계 통해 삶의 질 향상"

토요타자동차가 미래 친환경 스마트 도시인 '우븐 시티(Woven City)'의 1단계 건축이 완료돼 2025년 가을 이후 공식 가동에 나선다.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그룹 회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CES 2025'에서 토요타가 일본에 짓고 있는 스마트도시 '우븐 시티' 모습을 공개했다. 토요타가 2020 CES에서 '우븐 시티'를 공개한 지 5년 만이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일본의 아름다운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우븐 시티는 단순히 사람이 살고 일하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며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설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억달러(14조원) 프로젝트의 우븐 시티는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홈, 인공지능 등의 서비스가 어우러진 스마트 도시다. 도시의 도로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븐시티라고 명명했다. 다이킨공업, 닛신식품 등 총 5개 회사가 합류해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하며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우븐 시티에서는 사람, 사물, 정보, 그리고 에너지 등 4가지 영역의 연구와 혁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모두가 빠른 자동차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휠체어 경주용 자동차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야간에 안전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토요타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자동차 회장이 기조 연설하고 있다. /토요타

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론, 노인을 보살피는 반려동물 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토요타가 2021년 착공한 우븐 시티는 2024년 10월 말 실증을 시작하는 1단계 공사를 끝낸 상태다. 올 가을 첫선을 보이는 1단계 우븐 시티에는 토요타 직원과 가족, 정년퇴직자, 소매점, 실증에 참여하는 과학자 등 약 2000여명이 단계별로 거주할 예정이다. 토요타는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실증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우븐 시티의 주민들은 발명가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관점과 재능, 능력을 하나로 엮어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2025년 1월 15일(수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창업교육자료**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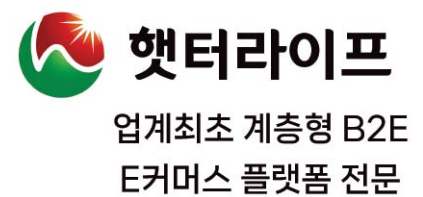
==> 법인폰 : 010-3088-0047 / E-mail : htmallcom@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헷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헷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3088-0047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코스피 2500선 터치... 外人·기관 '상승', 개인 '하락' 베팅

(장중 2521.86)

코스피지수, 전일비 3.46p 올라  
外人, 3거래일 연속 매수세 지속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기업 추가  
CES서 엔비디아 CEO 발언 영향



코스피가 전 거래일(2488.64)보다 3.46포인트(0.14%) 오른 2492.10에 장을 마친 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내 증시가 연초 강세장을 보이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가 장세를 정반대로 예측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46포인트(0.14%) 상승한 2492.10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0.33포인트(0.05%) 오른 718.29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521.86까지 2500선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지수 상승에, 개인투자자는 지수 하락에 베팅했다.

개인이 지난 6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국내 ETF는 KODEX200선물인버스2X(2배 레버리지)와 KODEX인버스, KODEX코스닥150선물 인버스 순이었다. 반면 외국인은 KODEX레버리지

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기관도 KODEX레버리지와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증가기준으로 지난해 11월 26일(2520.36)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지

수는 이날 장중 2500을 넘기며 '1월 효과(증시가 1월에 강세장을 보이는 현상)'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초 코스피 지수 상승은 그간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던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했다. 외국인 ▲3일 2844억원 ▲6일 3765억원 ▲7일 1573억원을 매수해 총 8182억원가량을 사들였다.

외국인의 주요 투자 대상은 3일과 6일에는 대형 반도체주였으나, 7일에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 개막과 함께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6일 9.84% 급등한 SK하이닉스는 이날 개장 후 1%대의 강세를 보이며 '20만닉스'를 회복했지만 증가는 19만5000원(-2.40%)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도 0.89% 하락한 5만54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의 발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3일과 6일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4488억원, 삼성전자를 1312억원 순매수했지만 젠슨 황이 CES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밝히면서 경쟁사인 두 기업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증권가는 당분간 국내 시장의 상승을 전망하는 분위기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CEO 연설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외국인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그동안의 과도한 낙폭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고, 외국인도 매도를 멈춘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중위권 운용사, 리브랜딩 효과 미미... "차별화 상품 필요"

ETF 점유율 확대 위해 마케팅 강화  
"한계 있어... 독창적 운용 등이 핵심"

중위권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리브랜딩을 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브랜드 변경보다는 차별화된 운용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F 시장은 지난해 규모가 170조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올해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

〈중소형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운용사	2024년 1월 3일	2025년 1월 3일
KB자산운용	7.90%	7.60%
한국투자신탁운용	4.90%	7.50%
신한자산운용	2.30%	3.20%
한화자산운용	2.40%	2.00%
키움투자자산운용	2.20%	2.10%
NH아모디자산운용	1.60%	0.90%
하나자산운용	0.30%	0.80%
우리자산운용	0.20%	0.20%

/금융투자협회

다. 이에 따라 중위권 자산 운용사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다. 하나자산운용이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기존 'KTOP'을 '1Q'로 바꾼데 이어 7월에 KB자산운용이 'KBSTAR'를 'RISE'로, 한화자산운용이 'ARIRANG'을 'PLUS'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우리자산운용이 'WOORI'를 'WON'으로 교체하며 리브랜딩 대열에 합류했다. 이달에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기존 'K OSEF'에서 'KIWOOM'으로 브랜드 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리브랜딩과 함께 광고와 판촉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KB자산운용은 광고선전비로

3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10억원에 비해 27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한화자산운용은 광고선전비로 전년동기(12억원) 대비 16억원 증가한 28억원을 썼다. 하나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역시 광고선전비를 각각 2억 6000만원에서 11억원,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산 운용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3일 기준 KB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7.6%로 지난해 초 7.9%에서 0.3%포인트 감소했고, 한화자산운용은 2.4%에서 2%로 0.4%포인트 줄었다. 우리자산운용은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하나자산 운용만이 0.5%포인트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리브랜딩만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명 변경은 투자자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운용 전략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해외 투자와 월 배당 상품,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채권 및 레버리지 상품에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위권 운용사들이 단순히 마케팅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며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연초부터 테슬라에 3억달러 투자... AI 주도주는 분산

### 해외주식 Click

상위 종목 순매수액 절반 '테슬라' 엔비디아서 브로드컴·팔란티어 분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새해에도 테슬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유지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주도주는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 브로드컴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새해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볼셰어즈' ETF로 약 1억7559만달러(2554억원)를 사들였다. 순매수 2위 종목도 테슬라로 약 1억4244만달러(2072억원)를 담았다.

서학개미들은 연초부터 테슬라에만 3억달러 넘게 투자한 셈이다. 동일 기간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총 순매수금액이 5억9845

만달러(8706억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 관련 종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를 해외주식 최선호주로 뽑고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전망되고, 로보택시 시행 추가 확대되며 자율주행 모멘텀 반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7(M7)' 종목 중 낮은 스코어를 기록 중"이라며 "테슬라의 12개월 선행(12MF)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2%로 시장 평균 21.8%를 하회하고, M7 종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12MF 추가수익비율(PER)은 113배로 시장 평균 22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주당순이익(EPS) 연평균 성장률(CAGR)을 반영한 추가 멀티플인 추가수익성장비율(PEG)도 4.7배로 시장 1.6배보다 높다는 평가다. 비교 기업 중 가장 높은 애플은 2.2배 수

준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출시, 자율 주행, 로보 택시 상용화 등 수익에 직접적인 요인이 나타나면 추가 멀티플(투자수익배수)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올해 캘리포니아, 텍사스주에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인 'FSD V13'은 연말 출시 예정이다.

더불어 서학개미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투심도 유지하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볼 3X' ETF를 1억240만달러(1490억원) 순매수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지난해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AI 대표주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브로드컴(4043만달러)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팔란티어에 12억3956만달러(1조8030억원)를 투자하면서 엔비디아(11억1105만달러)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8兆 돌파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5% 늘어...DC·IRP '성과' 자체 RA·제휴로 투자옵션 제공 예정

증권업계가 퇴직연금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8조원을 돌파했다.

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 1257억원으로 2023년 말 6조 4999억원 대비 25% 늘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5%, 45.1%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 NH투자증권 퇴직연금 DC거래법인은 2108개로, 2023년 말 대비 41% 증가한 618개 법인이 퇴직연금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 지방채,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 상품도 모바일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730여개 ETF(상장지수펀드)에도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부문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일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금융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향후에도 자체 RA 전략뿐 아니라 외부 RA 전문 업체와의 전략 제휴를 통해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서 부사장은 "NH투자증권은 업계 최고 수준의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복합제 개발 초집중

**한미약품 ‘아모잘탄플러스엘정’**  
10월 임상3상 종료… 상업화 속도

**보령 ‘카나브 패밀리’ 출시 예고**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셀트리온 ‘암로젯정’ 품목허가**  
지질인자·혈압 개선 효과 입증



로수젯 제품군 /한미약품

국내 제약 업계가 만성 질환에 집중해 복합제 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로수젯, 아모잘탄패밀리 등 자체 개발한 복합제의 성장세를 이어갈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말 ‘제2의 로수젯’으로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을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로 ‘HCP1803’을 연구개발해 왔고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임상 3상은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약품은 해당 물질에 대해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라는 이름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상업화

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은 서로 다른 세가지 작용 기전을 가진 항고혈압 성분을 낮은 용량으로 조합해 고혈압 초기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제다.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 상용화될 경우 저용량 고혈압 복합제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혈압 치료 현장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현재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등을 대상으로 하는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하는 등 차세대 신

약 후보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앞서 지난 2015년 출시한 로수젯은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2개 성분이 복합된 전문의약품이다. 로수젯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000억원대의 연간 처방 매출액을 올리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누적 처방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처방 매출액은 535억원을 기록했다.

고혈압 치료 복합제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도 한미약품 전문의약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처럼 여러 용량과 성분을 조합한 제품군을 확장해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보령도 올해 ‘카나브 패밀리’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보령은 최근 ‘BR1017’ 임상 3상 결과를 공시한 바 있는데, 보령은 현재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개량신약 3제 복합제로 ‘BR1017’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령은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에서 신약 후보물질 ‘BR1017A’와 ‘BR1017B’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는 임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물질들을 병용 투여하는 요법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해당 물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이 보령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령은 고혈압 2제 복합제 ‘BR1015’, 고혈압·이상지질혈증을 적응증으로 한 4제 복합제 ‘BR1018’,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를 정조준한 ‘BR1019’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은 일찍이 지난 2011년 제15호 국산 신약으로 내놓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다. 보령의 ‘카나브 패밀리’ 제품군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누적 매출 700억원대를 기록하며 13%의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보령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령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7602억원을 기록해 ‘1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제약도 ‘암로젯정’ 품목허가를 통해 순환기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젯정’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는데, 같은해 5월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암로젯정 임상 3상 연구에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지질인자와 혈압 개선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은 말 그대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이나 치료 극대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세정그룹, 임원 인사… “경쟁력 강화 박차”

신찬희 이사, 3년만에 상무 승진  
송희정·임세희·이시진 이사 선임

국내 중견 패션기업인 세정그룹이 사업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세정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각 부문별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지난 12월 자회사 신설법인 오비알(이하 OVL)을 출범시키며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정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먼저, 세정그룹과 OVL의 구매생산본부장, 브랜드기획실장, 액세서리(ACC)상품기획부장을 겸직 중인 신찬희 이사가 상무로 승진했다.



신찬희 세정·OVL 신임 상무, 송희정 세정 이사, 임세희 세정 이사, 이시진 OVL 이사

신 상무는 지난 2003년 세정에 입사한 이후 영업, 영업 상품 기획(MD)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세정그룹 패션 브랜드인 인디안 팀장, 사업전략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이사로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세정그룹과 OVL에서는 총 3명이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세정그룹은 송희정 WM상품기획부 데일리리스트 팀장을 이사로 임명했으며, 패션 및 주얼리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임세희 이사를 새롭게 영입해 주얼리사업본부 디디에두보사업부장으로 선임했다.

OVL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세정의 글로벌 투자와 신규 사업을 관리해 온 이시진 매니저가 이사로 승진하며 미래성장실장에 임명됐다.

세정그룹 관계자는 “세정그룹은 2025년을 ‘세정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대혁신의 해’로 선언해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임원 인사 또한 내부 승진, 외부 영입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업 분야별 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韓,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세계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이 세계 최대 연구·혁신(R&I)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이 2021년부터 7년간 955억유로(약 144조 7000억원)를 지원하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와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참여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러 2’ 부문인 ‘글로벌 문제 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한정된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으로 한국 연구자들은 EU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과제에 참여할 수 없고, 회



이종호(오른쪽) 과기정통부 장관과 일리야나 이바노바 EU 집행위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국이나 준회원국 연구자의 초청을 받아 협력 기관으로만 참여해야 했다. 이번 가입으로 총괄기관, 주관 참여기관 등으로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별도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과제 선정평가만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준회원국으로서 재정 기여를 통해 호라이즌 유럽의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혜민 기자 hyem@

## 마코빌, 캐릭터 ‘벨리곰’ 게임속으로

퍼즐게임 ‘벨리곰 매치랜드’ 출시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IP 스타트업 마코빌이 롯데홈쇼핑의 인기 캐릭터 ‘벨리곰’을 게임으로 재탄생시켰다. 마코빌은 7일 ‘벨리곰 매치랜드’ 출시를 시작으로, 자체 IP 개발까지 아우르는 게임 라인업을 구축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속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벨리곰 매치랜드’의 주인공 ‘벨리곰’은 2018년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캐릭터로, SNS 팔로워 170만 명을 보유한 인기 IP다.

지난 2024년 11월에 출시된 ‘벨리곰 매치랜드’는 IP의 특성을 살린 퍼즐 게임으로, 폐장한 놀이동산 ‘벨리랜드’를 재건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귀여운 ‘벨리곰’과 함께 ‘꼬냥이’, ‘자아도치’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IP에 최적화된 비주얼과 게임성으로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캐주얼한 ‘3매치 퍼즐’ 방식에 깊이 있는 콘텐츠와 도전적인 미션들을 더해 IP 팬들에게 최적의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사운드 등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와 함께 ‘놀이동산을 꾸미는 재미’와 ‘미션을 수행하며 레벨업하는 즐거움’ 등 ‘벨리곰 매치랜드’의 긍정적인 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KT, 장기 고객에 ‘모나용평 숙박권’ 제공

16일까지 신청, 20일 당첨자 안내

KT가 새해를 맞아 1월 ‘초대드림’ 혜택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초대드림은 스포츠, 축제, 캠핑 등 특별한 문화 이벤트에 장기 고객을 초대하는 장기고객 우대 혜택이다.

이번 초대드림은 1월부터 3월사이에 사용이 가능한 모나용평 1박 숙박권과 스키 반일 렌탈, 리프트 반일권 제공 혜택을 준비했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인 가족은 호텔 디럭스 타입, 3인 가족은 타워콘도

18타입, 4인 가족은 빌라콘도 28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초대드림 응모는 오는 16일까지 KT닷컴 ‘장기고객 감사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T모바일, 인터넷, TV 상품 등의 가입이 합산 5년 이상 고객이 대상이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개별 안내된다. 당첨되지 못한 고객들도 “꽂이어도 괜찮아” 혜택을 통해 모나용평의 숙박과 스키 렌탈, 리프트권을 할인받을 수 있다. KT는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게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 ‘K-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불리한 대내외 여건 속 6% 성장”

농식품부, 수출 9년 연속 상승세  
미국·유럽 등 주요 권역서 약진  
라면·쌀가공식품 등 성장세 주도  
비건·글루텐프리 식품 인기몰이

지난해 ‘K푸드+’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달러를 넘어섰다. 라면, 쌀가공식품, 김치 등의 품목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K푸드+란 농식품에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을 더한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K푸드+수출액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농식품 수출액이 99억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이 3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년에 비해 9.0% 늘어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2023년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이던 일본 엔화의 약세,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라면·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드라미·영화 등 K-콘텐츠에 자주 노출



지난해 9월 홍콩에서 열린 K-신선식품박람회의 모습.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되고, 라면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수출 대상지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내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넘게 늘었다. 가장 높은 성장세(+38.4%)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는데(+51.0%), 글루텐프리 건강식 및 간편식 등이 선호도가 높았다.

김치는 1억6000만 달러 수출되며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의 1억500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섰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운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증가(+5.2%) 요인을 작용했다.

농식품 수출을 권역별로 보면 미국을 비롯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

한 중남미 등지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액 1위 대상지는 미국(15억9000만 달러), 2위는 중국(15억1000만 달러), 3위는 일본(13억7000만 달러)이었다.

미국은 2023년 3위 시장에서 2024년 1위 시장에 올라섰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은 동시에, 현지 스포츠 행사(야구·골프대회 등) 및 대학과 연계한 K-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현지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및 소매점(파이브달러 등)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전후방산업 분야는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이 줄어든 반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천연가스 인프라 적기 구축·효율적 운영”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시무식서 4가지 핵심과제 천명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천연가스 인프라 적기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한층 높여 국민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6일 대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들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천연가스 시장서 압도적 경쟁력 확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및 천연가스 인프라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청렴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할 4가지 핵심과제로 천명했다.

최 사장은 신년사에서 “어떠한 도전에도 당당하게 맞서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가스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지난 2년 간 숱한 고난을 이겨내며 향상시킨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5년에도 국민과 고객,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우선 지속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최적의 LNG도입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 LNG



공급망을 튼튼히 구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설비 운영으로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가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저탄소 LNG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사장은 마지막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윤리경영의 가치를 되새기고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 받고 활력이 넘치는 기업 문화를 꽃피우자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2025년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열린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지혜롭게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무쌍한 대내외 환경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가스공사가 되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검역본부 소비자 대상 홍보 캠페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근절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차단에도 나섰다.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 2022년 71건,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위조품이

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위험도 있다. 당국은 또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중소기업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강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 위한 육아 환경 개선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5920만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어린이집 운영 개선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 이 중·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1996년 첫 개원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어린이집은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 대상으로 하지만,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해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직장어린이집 원아 3272명 중 18.7%인 612명



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자녀였다. 김 장관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육아지원 3법 개정과 올해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인상 등 정부의 육아 지원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 긴급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신설했으며,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돼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근로자는 기존 1800만원에서 2310

만원으로 약 5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지원금을 도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육아 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

##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국립공원공단 실족 사고 등 예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새해를 맞아 산행을 계획 중인 탐방객들에게 빙판길 실족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월에 발생한 산행 사고는 총 25건으로 이 중 92%인 23건이 실족으로 인한 골절과 상처였다. 또한, 무리한 산행으로 심장 돌연사가 발생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몇 가지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우선, 산행 전에는 반드시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

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식량과 방한용품을 준비하고, 산행 전에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산행 중에는 안전장비를 꼭 챙겨야 한다. 탐방로가 얼어 있는 겨울철에는 아이젠과 스틱 같은 장비가 필수적이며, 낮은 기온으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대비해 여벌의 옷, 장갑, 상비약 등을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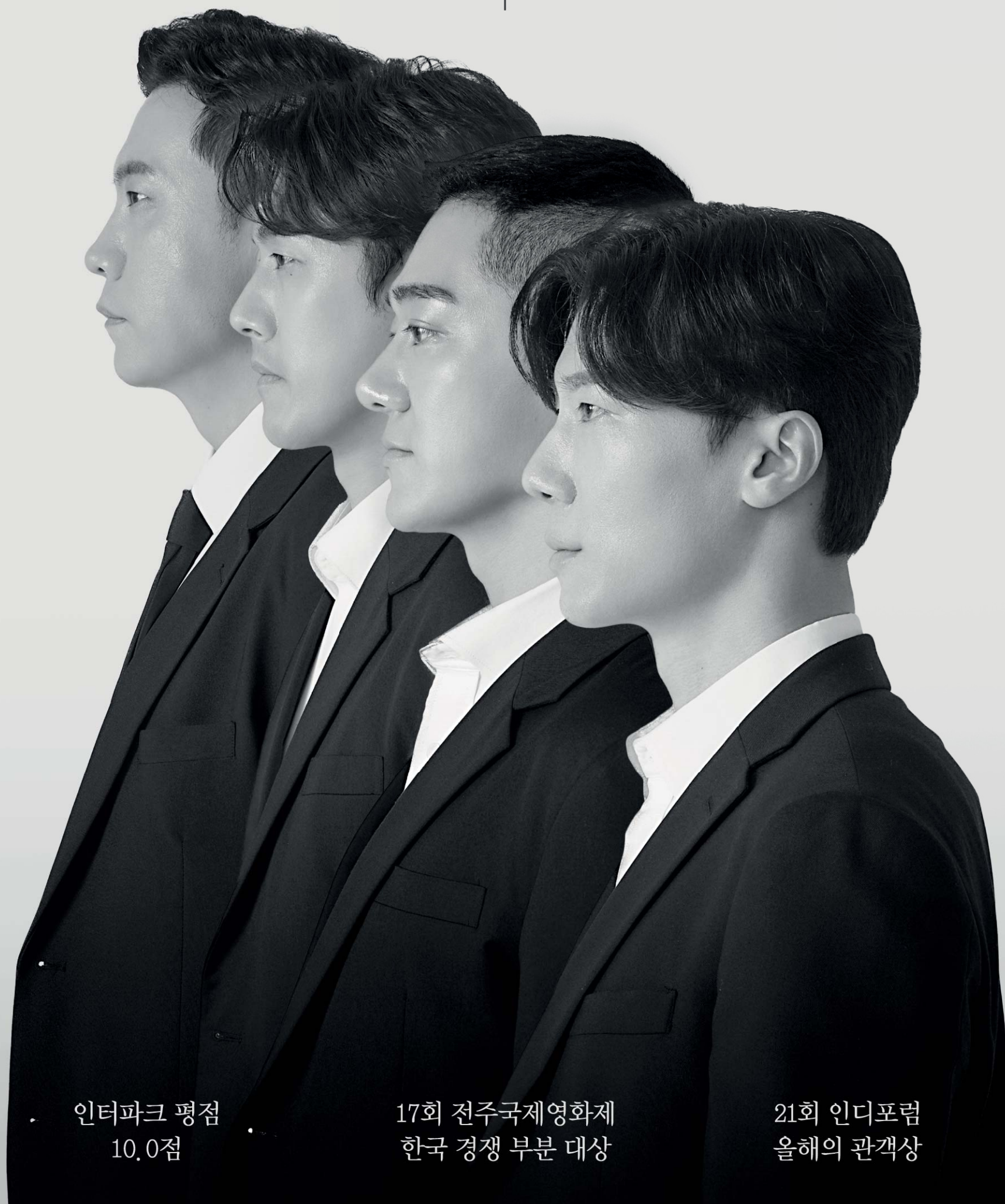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조난 위험이 높고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탐방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위치표지판을 미리 확인해 조난 등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김대환기자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2관  
2024.10.02 ~ OPENRUN

# 델타 보이즈

우리 노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출연

- 서신우
- 정지호
- 장우진
- 정주호
- 최기원
- 강지훈
- 정영성
- 박주용
- 김호창
- 김도경
- 윤선근
- 박준성
- 김도후
- 김단울
- 장탁현
- 조제상
- 정휘욱
- 김소민

프로듀서 김건하 연출/각색 조성진 음악감독 강찬하 무대디자이너 정용현 조명디자이너 유은경 음향디자이너 Team Mr-J 조연출 장문희 의상/소품 장문희 총괄 콘텐츠 디자이너 안재린 포토 윤주식  
 주최 피아이어 기획/제작 피아이어 제작감독 김단울 제작협력 (주)필름초이스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예매처 인터파크 문의 02-764-9102 협찬 삼양식품

인터파크 평점  
10.0점

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부분 대상

21회 인디포럼  
올해의 관객상





## 부산시, 2025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 전담조직 신설해 스포츠 외교 강화

오는 12월 1일~5일 벅스코서 열려 191개국 2000여명 인사 참석 예정 총회추진팀, 기획·홍보 등 진행 부산 역사·문화 알리기 행사 모색

부산시는 올해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5 부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 조직인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추진팀'(이하 총회추진팀)을 신설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총회추진팀은 지난 1일자로 신설됐으며, 앞으로 총회 전반에 대한 기획·사전 홍보 행사·유산(Legacy)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글로벌 도핑방지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6년 주기로 개최된다. 금년에는 12월1~5일 해운대구 벅스코(BEXSCO)에서 열리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국제패럴림픽(IPC)위원·국제경기연맹대표·각국 스포츠 장관 등 191개국 2000여 명의 인

사가 참석한다.

총회는 도핑 방지와 관련된 전 세계 관계자가 모여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 제·개정, 세계도핑방지기구의 5개년 전략 등에 대해 다루며, 도핑방지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국제경기대회 유치 등에 필요한 스포츠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 다양한 형태의 '붐업(Boom-up)' 행사를 기획해 총회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회 기간 참가자들이 부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와 체험행사 등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는 2022년 5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에서 경쟁국 도시들을 압도적인 득표로 제치고 부산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시는 이번 총회의 홍보를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매년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학술(그림 공모전)과 교육(토크 콘서트), 참여(가족 마라톤 바다런) 등 3가지 프로그램에 33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지난해에는 바다런 마라톤 행사를 개최해 전년 대비 다채로운 코스와 행사로 총 35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김아람(쇼트트랙), 기보배(양궁), 김동현(복슬레이)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선수위원 등이 대거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미래 설계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번 총회의 부산 개최로 국제스포츠 도시, 국제외교의 장으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며, 도핑방지 인식 제고와 함께 공정 스포츠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AI교과서 활용 여부, 학교서 각자 결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내달 초쯤 안정되면 선택하길 바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여부는 관내 학교가 각자 결정해 추진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된 가운데, 관내 학교가 이를 자료로 활용할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최근 관내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률적 지위를 둘러싸고 국회와 교육부가 오랫동안 이견을 보여오다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라며 "이에 따라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내 학교가 이를 자료로 활용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할지 여부는 내달 초를 지나 결정해 달라고 독려했다는 게 정 교육감 설명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아직 교육계 안팎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니, 2월 초쯤 어느 정도 (정치적 등으로) 안정이 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법률로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대구 관내 학교는 이를 교과서로 활용을 강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일자리 지원

교육·훈련 대상자 1.6만명으로 늘려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확대 운영 3월·9월 '중장년 고용 생태계 포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더 많은 중장년 세대가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권역별 채용 박람회를 연 5회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기업으로 찾아가는 현장 경험형 채용 설명회를 신설하고, 직무 체험과 현장 면접을 결합해 운영한다. 기존 인턴십 사업을 개선해 '경력 인재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700여명이었던 교육·훈련 대상자를 금년 약 1만6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기업과 구직자가 만나는 기회의 장인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도 확



지난해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운영 모습.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 운영한다. 올해는 행사 기간을 이틀로 늘려 1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단은 올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장년 고용 생태계 포럼을 연다. 기업과 전문가들이 중장년층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재단은 4060세대가 일하고 싶은 미래를 현실화하고, 서울시 중장년 정책

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문을 연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는 기존의 공공 일자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학력과 경력, 전문성을 반영한 신노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맞춤형 취업 훈련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누구나 일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 고양시민 89% "경제자유구역 유치 필요"

긍정적 영향·변화 기대감 매우 높아 주요사업, 바이오 정밀의료 등 꼽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가 확인됐다. 최근 고양시가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89.0%가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66.2%가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92.4%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5.0%의 시민이 지정 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할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 정밀의

료(29.9%), 케이(K)-컬처(27.6%), 스마트 모빌리티 및 도심항공(21.6%), 전 시컨벤션 및 마이스 산업(15.4%)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고양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와 케이(K)-컬처관광 등 복합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발전(28.0%), 첨단산업 융합도시로의 발전(24.5%), 국제적 수준의 첨단산업을 갖춘 도시(12.7%)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시범 운영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맞손'

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과 손잡고 이번에 출시한 미니보험은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액 단기 보험이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치아 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갑수(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강력 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만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 완료한 자로, 별도의 부담 금액은 없다. 이달 8일 오전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때 관련 팝업창이 뜨면, 직접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 내역에 포함된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진단금과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상대로 미니보험을 시범 운영하고, 가입 추이와 효용성을 검토해 실물·후불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영덕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경북 1위'

총 11억 700만원 모금 '성과' 구민 홍보지원단 운영 등 추진

영덕군이 경북 도내 지자체 중에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을 11억 700만원 모금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복지사업과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물론 지역을 홍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모금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과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이는 ▲5개 사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구민 홍보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전국 향우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부 참여와 저변 확대 ▲경북 최초 민간 플랫폼(위기브) 도입으로 기부 경로 다각화와 편의성 제고 ▲엄선된 고품질 답례품 선정 및 관리 등의 성공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부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자의 마음과 정성이 지역 행복과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현지 트렌드·메뉴 반영... 'K-치킨' 글로벌 입맛 사로잡는다

**제너시스 BBQ** 57개국, 700개 매장  
지난해 글로벌 매출 1100억 기록

**교촌치킨** 美·中 등 7개국에 진출  
“품질·신뢰 우선 ‘진심경영’ 집중”

**bhc** 7개국서 공격적 점포 확장  
연골·껍질 등 태국 특화메뉴 개발



BBQ가 바하마의 수도 나소에서 운영중인 매장.



중국 항저우 교촌치킨 매장 '정배어 완상정점'



bhc 태국 11호점(푸처파크몰점) 전경. /각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글로벌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동남아 등 세계 각국에서 K-치킨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화한 맛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온 제너시스BBQ는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피지 등 총 57개국에서 약 7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들어선 국가는 미국이다.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BBQ 매장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만 테네시, 아칸소, 인디애나, 네브래스카 등에 추가 진출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BBQ를 집중 조명했다. 글로벌 외식업 전문지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는 BBQ를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고 꼽았다.

지난해 글로벌 법인 매출 1100억원을 기록한 BBQ는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매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BBQ는 최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대형 쇼핑몰 '시티워크 수디르만 자카르타'에도 BBQ 1호점을 오픈했다. 쇼핑몰, 호텔, 오피스 빌딩 등이 밀집한 자카르타 최대 번화가에 자리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걸쳐 있는 섬나라로 인구는 약 2억7000만명에 달해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다.

BBQ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을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반둥, 스마랑, 수라바야, 발리 등 주요 도시에 출점한다는 목표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신년사에서 해외 사업 강화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윤 회장은 “올해를 세계 1위 프랜차이즈 기업을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해로 만들겠다”며 “경계없는 경험경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미국, 중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서 82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말레이시아로 총 3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항저우에 네 번째 신규 매장을 열었으며, 미국 내 운영중인 3개 직영점은 리뉴얼 중이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아시아 매장의 QSC(품질, 서비스, 위생) 강화를 위한 전사 TF를 구성하고 집중 관리를 펼쳤다. 원자재 수급, 메뉴 구성, 서비스 등 국내 영업 우수사례를 통해 얻은 운영 노하우를 각 진출 국가별 영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시켜 글로벌 아시아 진출국의 전반적인 QSC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회사 관계자는 “출점 속도보다는 품질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교촌의 ‘진심경영’에 발맞춰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을 이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는 미국, 태국, 캐나다 등 7개국에 27개 매장을 운영하며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포 수는 적지만,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진행 중이다. 특히 태

국 진출 1년만에 11개 매장과 대만 1호점 오픈 등 지난해 아시아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

bhc는 태국 시장 진출에 앞서 현지 소비자가 연골과 껍질 등 닭의 특수 부위를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해 현지 특화 메뉴를 개발했다. 또 습한 기후를 고려해 ‘크리스피 뿌링클’을 출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소비재 기업 나진도 그룹과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bhc는 제품력과 글로벌 운영 경험을 결합해 빠르게 현지 시장에 안착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몰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 초기부터 할랄 인증을 완료하며 현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배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활성화된 온라인 주문 및 딜리버리 서비스로 고객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치킨 시장이 포화 에 다다르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은 필수가 됐다”며 “국내 인기 메뉴를 해외에 소개하는 동시에 현지 외식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 메뉴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대상그룹, 전사적 규모 ‘디지털 전환’ 가속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DAYS'로  
매출 등 하루 600만건 데이터 수집

대상그룹이 조직 전반에 데이터 기반 문화를 정착하고,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다각화하는 등 전사적 규모의 디지털 전환(DT)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대상그룹은 전 세계 고객에게 대상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일찌감치 제품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DAYS(Data All Your Needs)'가 대표적이다. DAYS는 고객 반응, 매출, 날씨, 각종 경제지표 등 하루 약 600만 건의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해 소비 트렌드와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실제로 최근 DAYS를 활용한 DT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김치 마케팅과 B2B 영업 부문에서 매출 증가 및 업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계열사의 연구개



대상그룹이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대상그룹

발(R&D)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정보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했고,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영업사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객경험관리(CRM) 솔루션 '세일즈포스'를 도입했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

사내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사내 임직원 DT 소통공간 '디지털 정원' 운영과 전 세

계 DT 트렌드 흐름 파악 및 선진 기술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캠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DT 교육의 일환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교육'을 진행했다. 대상그룹은 2026년까지 최소 30명 이상의 사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해 단순히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에이피알, 신입인턴·경력직 채용 공고

미국·일본 등 해외담당 인재 우선채용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2025년도 인재 채용 계획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신입 인턴과 경력직을 동

시에 모집하는 가운데 ▲마케팅 ▲MD ▲e커머스 채널 운영 ▲해외 B2B 영업 등의 직군을 선발할 예정이다. 에이피알의 인재 채용 계획은 글로벌 전문 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에이피알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대만 등 해외 지역

을 담당할 인재들을 우선 채용한다. 오는 12일까지 '일본 집중 채용' 공고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 및 MD 부문 채용을 진행한다. 일본어 소통 역량과 현지 뷰티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이번 '일본 집중 채용'에 한해 커피셋 소통, 취업 축하금 보상 제도 등도 적용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부드러운 맛 강조 '스카치블루 클래식'

롯데칠성음료, 꿀·바닐라 향이 특징  
기존제품 보다 용량 늘린 700ml 제품

롯데칠성음료의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스카치블루'가 합리적인 가격과 부드러운 맛을 강조한 '스카치블루 클래식(사진)'을 출시한다.

'내 일상을 물들이는 스코틀랜드'라는 콘셉트로 기획된 '스카치블루 클래식'은 마스터 블렌더 '존 글라스(John Glass)'의 세밀한 블렌딩으로 꿀, 바닐라 등의 달콤한 향이 특징적이며 스트레이트, 온더락, 하이볼 등 다양한 음용 방법에 어울리는 훌륭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카치블루 클래식'은 하이볼과 같은 믹솔로지(Mixology) 문화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존의 '스카치블루'의 라인업보다 용량을 늘린 700ml 제품으로 일상에서 더욱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알코올 도수는 기존의 스카치블루 라인업과 같은 40도를 유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스카치블루 클래식' 출시를 기념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하이볼 전용 잔이 포함된 '스카치블루 클래식 하이볼 패키지'를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칠성음료가 1997년 첫 선을 보인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스카치블루'는 30여년간 레시피와 품질 계승, 발전시키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 1월 중 대표 라인업인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널', '스카치블루 스페셜', '스카치블루 21년'의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대동여주도 '고운달 X 장욱진 에디션' 출시

설 앞두고 전통주·예술작품 컬래버

전통주 큐레이션·유통 플랫폼 '대동여주도'가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주와 예술작품을 컬래버레이션한 첫 아트 에디션 '고운달 X 장욱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운달 X 장욱진 아트 에디션'은 국내 최초 위스키 마스터 블렌더 이종기 명인의 전통 증류주 '고운달 백자 10년 숙성'과 한국 현대미술 거장 장욱진 화가의 대표작 '강\_1987'의 특별 에디션 판화를 결합한 제품이다.

'고운달'의 시그니처인 달항아리 주병에 '강\_1987'을 레이블로 적용했으며, 서랍형 아트 케이스를 활용해 상단에는 고운달 백자를, 하단 서랍에는 장욱진 화가의 친필 사인 및 에디션 넘버링이 표기된 에디션 판화 작품을 배치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특히 이종기 명인의 '고운달' 10년 숙성 버전은 이번 협업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제품으로 문경 오미자로 빛은 와인을 2차례 반복 증류하고 전통 백항아리에서 10년간 숙성해 완성했다. /신원선 기자



# ‘NEW 엔씨’ 재탄생... 도전·혁신의 새 장 열다

창사 이래 첫 공동대표 체제 구축 장르 다변화·퍼블리싱 역량 강화 내부 혁신·신뢰 회복... 체질 개선 ‘벤처 정신’과 구성원 노력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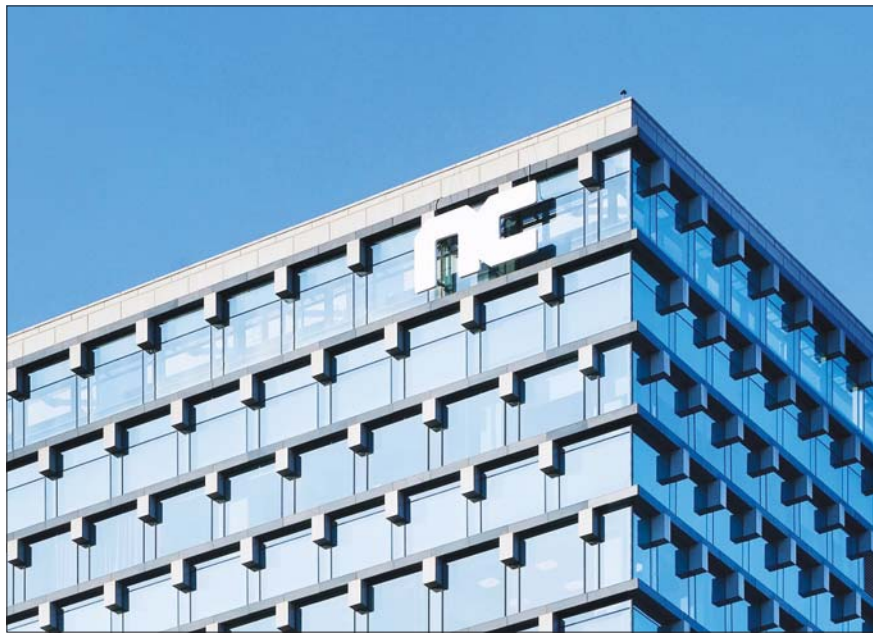
엔씨소프트에게 올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도전의 해’가 될 전망이다. 바빴던 지난해를 보내며 체질 개선과 라인업 확보를 이어간 결과, 엔씨는 1년 전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다사다난했던 게임업계도 ‘뉴 엔씨(New NC)’의 2025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초 창사 27년 만에 최초로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변화에 착수했다.

본사에서 직접 게임을 만들고 배급해온 기존 개발 방식을 탈피해 다수의 ‘독립 스튜디오 체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본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력을 분산 배치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에 대응하고, 개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올 2월 설립될 개발 스튜디오 3곳은 각각 ▲TL ▲LLL ▲TACTAN(택탄)의 신규 IP를 담당하게 된다. 엔씨는 향후 선보일 신규 IP도 모두 스튜디오 체제를 통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정리를 마친 엔씨는 올해 ‘MM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전경.

/엔씨소프트

ORPG, 슈팅, 전략, 서브컬처’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아이온2 ▲LLL ▲택탄 등 엔씨가 직접 제작 중인 대작을 포함해 ▲빅게임스튜디오와 협업해 선보일 서브컬처 신작 ‘브레이커스’ ▲미스틸게임즈와 협업해 선보일 ‘타임 테이커즈’ 등 외부 스튜디오 투자를 통해 확보한 IP의 퍼블리싱도 예정돼 있다.

올해 주목할 점은 엔씨의 퍼블리싱 부문 도전이다. MMO 중심의 대작을 개발해 직접 서비스해온 엔씨는 많은 인력과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지닌 것에 비해 개발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했

다. 내부적으로는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면서, 투자를 통한 외부 IP 확보로 퍼블리싱 역량까지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텐센트, 북미·유럽 아마존게임즈, 동남아 VNG 등 유수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긍정적이다. 각 지역별 서비스 노하우를 지닌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시장 특성에 맞는 게임을 선보이는 전략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럽은 북유럽 스웨덴 소재 ‘문로버 게임즈’, 동유럽 폴란드 소재 ‘버추얼 알케미’ 등의 게임 스튜디오에 투자하며 엔씨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엔씨는 지난해 변화와 도전을 강조했다. 약속했던 변화는 잘 지켜지는 중이란 평가다. 2024년 출시된 신작들은 모두 다른 장르로 선보였고, 이용자 친화적 과금 모델을 채택하는 등 변화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서비스 중인 IP도 생방송을 통한 꾸준한 소통,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업데이트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 한계로 지적했던 높은 고정비용 인건비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일부 프로젝트 종료를 진행하기도 했다. 삼성동에 있는 엔씨타워 매각으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에 나섰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도 쉬지 않았다.

엔씨는 2025년 신년 경영 키워드로 ‘벤처 정신으로의 재무장’을 뽑았다.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성장을 위한 변곡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엔씨가 처음 출발했던 벤처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채로운 포트폴리오와 가벼워진 경영체계, 글로벌 투자와 신시장 개척까지 변화의 선봉장에 선 엔씨가 또 한번 벤처 정신으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2024-2025 KBL 올스타 스페셜 패키지’ 상품. /무신사

무신사

## ‘KBL 올스타전’

### 유니폼 한정 발매

무신사가 한국농구연맹(KBL)이 개최하는 올스타전 공식 유니폼을 단독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024-2025 KBL 올스타 스페셜 패키지’를 공식 발매한다. 공식 패키지는 무신사의 한정판 및 신상품 출시 전문 플랫폼 ‘무신사 드롭’을 통해 선착순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패키지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착용하는 유니폼과 동일한 어센틱 유니폼 ▲자수 와펜 6종 ▲유니폼을 본떠 만든 운동용 가방으로 구성됐다. 유니폼 전면에는 각 선수의 올스타전 출전 횟수가 들어간 별을 추가했으며, 패키지는 홈팀과 원정팀의 유니폼 디자인을 각각 본뜬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무신사는 공식 패키지 발매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무신사 쇼케이스를 감상하고 이달 21일까지 댓글을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3명을 추첨해 올스타전 출전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농구공을 증정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공략하고자 하는 구단과의 협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올해도 다양한 종목과의 협업을 확대해 스포츠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 벨먼, 설 선물세트로 향기의 품격 선사

LG생활건강 한정판 설 선물세트 프리미엄 퍼스널 케어 경험 제공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퍼스널 케어 브랜드 ‘벨먼’에서 ‘센티드 모먼트’ 제품군으로 구성된 한정판 설 선물세트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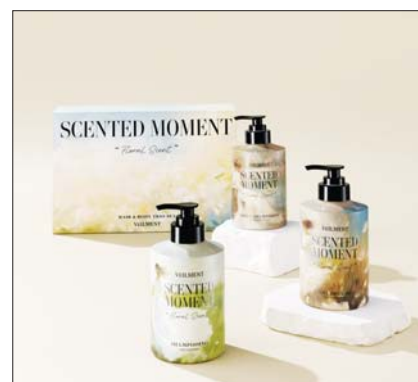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벨먼 ‘센티드 모먼트’ 제품군은 전문 조향사가 조합해 낸 특별한 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센티드 모먼트’ ‘플로럴 세트’는 샴푸 415ml와 컨디셔너 415ml, 바디워시 415ml로 구성됐다. 모두 LG생활건강 센베리 퍼퓸하우스의 전문 조향사의 손에서 탄생한 꽃 향기를 담고 있다. 샴푸와 컨디셔너는 그린 애플과 아이리스, 바닐라 향을 전달하고, 바디워시는 은은한 머스크 향을 선사한다.

‘센티드 모먼트’ ‘바디케어 세트’는 170년 전통의 세계적인 프랑스 향료 회

사인 로베르테와 공동 개발한 니치 퍼퓸 가운데 ‘우디 바닐라’ 향의 샤워젤 415ml와 바디로션 415ml를 포함하고 있다. 바디워시는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 레티놀, 판테놀 등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한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 샤워 시간에 풍부한 향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벨



벨먼 ‘센티드 모먼트’ 플로럴 세트. /LG생활건강

먼 ‘센티드 모먼트’ 선물세트는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스타필드 수원

## ‘흑백요리사’ 팝업

바이츠 플레이스 시즌4 선배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수원에서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 4인과 함께하는 ‘바이츠 플레이스 시즌4’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바이츠 플레이스’는 최신 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푸드 편집숍으로, 스타필드 수원에서 3~4개월마다 새로운 브랜드와 요리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바이츠 플레이스 시즌4’에서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셰프들의 팝업스토어를 기획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신세계프라퍼티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팝업에서는 ▲장작 구이 통닭으로 주목받은 오준탁 셰프의 ‘닭강정’ ▲일식 명장 장호준 셰프의 ‘호쿠네’ ▲데이비드 리 셰프의 수제 버거 음식점 ‘보어드맨헝그리’ ▲이복요리 전문가 최지형 셰프의 ‘리복방’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간식 팝업스토어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안재선 기자

## 헤라, 새로운 하이브리드 쿠션 선배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데 출시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브랜드 헤라에서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은 헤라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쿠션이다.

이번 신제품은 아모레퍼시픽 최초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메쉬’ 소재를 활용했고, 내용물이 담긴 담지체를 메쉬 망이 한 번 더 감싸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은 어려운 양 조절, 내용물 뭉침 등 기존 단일 구조의 한계점을 개선해 별도의 양 조절 없이

얇고 고르게 피부에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글로우 리플렉서’ 성분이 일반 글로우 오일 대비 더욱 맑고 투명한 광채 메이크업을 완성해 준다.

이와 함께 스킨케어 효능까지 더해져 속피부도 관리할 수 있다. 성인 여성 30명 대상 기기측정 평가에서 이 제품 사용 후 2주 만에 안색 투명도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은 총 7가지 색상으로 선보여지며 ‘00N1호 다이아’ 색상의 경우 원하는 부위의 입체감을 강조하는 하이라이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 연세대서 연구노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삼성바이오에피스 “산학협력 확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6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연구노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생명시스템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우수 상패와 함께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연구노트는 연구 시작부터 결과물 보고, 발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다. 연구노트는 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결과 보호, 논문 발표, 특허 출원 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주요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연구노트 작성법

을 교육하고, 별도의 시상식을 통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총 8개 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어 왔고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쌓아 온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역량을 대학에서 적극 전파해 왔다. 또 바이오의약품 및 임상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업계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펼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인사팀장인 강대성 상무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간의 폭넓은 학술 교류가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바이오 제약 업계의 특성을 살린 산학협력 활동을 올해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Vivid*  
**STRAWBERRY  
 MOMENT**



하와이안 베리볼  
 Hawaiian Berry Bowl  
**7.4** ICE ONLY  
 \*스푼이 함께 제공됩니다

생딸기주스  
 Real Strawberry Juice  
**6.9** ICE ONLY

생딸기&생바나나 라떼  
 Real Strawberry & Banana Latte  
**6.9** ICE ONLY

**ANGELINUS**





**메디톡스, '미메틱스·엑솔런스' 사업 추진 협약**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 센터에서 K바이오 스타트업 미메틱스, 엑솔런스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메디톡스 주희석 부사장(왼쪽부터), 미메틱스 박형기 대표, 엑솔런스 권기환 대표, 서울바이오허브 김현우 단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디톡스



**김영신 기정위원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난 6일 김영신 원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영신 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은 "대내외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임창민 선수, 한림화상재단에 기부금 전달**

한림화상재단은 삼성 라이온즈 임창민 선수로부터 화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부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림화상재단은 지난달 24일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본관 6층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임창민 선수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기부금은 피부이식과 재건술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화상환자 3명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림화상재단



**중앙대-타이거 스튜디오, 창의·융합형 리더 육성**

중앙대는 학내 방송국·신문사 등 미디어 담당부서인 미디어 센터가 타이거 스튜디오와 6일 학내 본관 혁신전략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리더를 양성하는 데 뜻을 모아 체결됐다. 이찬규 중앙대 행정부총장, 김영섭 타이거 스튜디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롯데월드, '히든스포터즈' 25기 활동 마무리**

롯데월드는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 '히든스포터즈' 25기가 지난 3일 신제품 제안 발표식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성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5기는 지난 6개월간 SNS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쳤으며,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인 '히든카드 프로젝트'의 발표식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롯데월드

# 한국엔컴퍼니그룹, 이웃사랑 성금 9억 '쾌척'

22년간 사랑의열매 155억 기부 대전지역 등 소외된 이웃 지원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올해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성금 9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지난해까지 22년간 기부한 누적 성금은 약 155억원에 달한다.

전달된 성금은 서울지역(서울 사랑의열매)을 비롯해 지역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인 한국엔컴퍼니와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



한국엔컴퍼니그룹 본사 전경. (원형사진)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

크놀로지 공장이 소재해 있는 대전지역(대전 사랑의열매)과 충남지역(충남 사랑의열매) 등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조현범

회장의 ESG 경영 철학에 따라 사랑의 열매 이웃사랑 성금 전달과 더불어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토요타 서울시장 표창 수상**

한국토요타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콘야마 마나부·사진)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4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특별시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서울시가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기관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토요타는 2021년 세종문화회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누구나 꿈나무오케스트라'를 후원하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음악 전문 교육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성운 기자

## 유한김벌리, UNGC한국협회 발전기금 1억 출연

'도너스 월' 영구 기록 예정

유한김벌리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7일 유한김벌리에 따르면 기부금 전달식은 전날 UNGC 한국협회에서 진재승 유한김벌리 대표와 이동건 UNGC 한국협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유한김벌리는 향후 발전기금 출연 기업으로 'Donor's Wall(도너스 월)'에 영구히 기록될 예정이다.

유한김벌리는 일찍이 윤리·투명 경영,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등으



지난 6일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한김벌리 UNGC 한국협회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이동건 UNGC 한국협회장(왼쪽)과 진재승 유한김벌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김벌리

로 경영혁신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가 창립된

2007년부터 발기인이자 회원사로 함께 왔으며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의 4대 가치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ESG 경영을 주도해 온 공로로 UNGC 한국협회 지속가능경영 리더그룹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한편 유한김벌리는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제품으로 매출의 95% 이상을 달성한다는 ESG 경영 목표 아래 2019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저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OCI미술관 16일부터 윤상 특별전**

OCI미술관이 20세기 한국 현대 미술사 속 잊혀진 수집가 윤상의 존재와 의미를 되살린다.

OCI미술관은 오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관 15주년 기념 소장품 전 '틸보 윤상과 무-즈의 추억'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OCI미술관은 이번 신년 전시를 통해 소장품 '윤상 수집 현대화가 작품전 기념 서화첩'을 최초 공개해 1950년대 한국 현대 미술사의 공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지난 2010년 국내 경매에서 이 서화첩을 입수한 OCI미술관은 그동안 수집, 보존 처리,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학자 하영희 전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탈초 및 감수를 거쳐 15년 만에 공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유한양행, 연말 바자회·경매 성료

4700만원 기부금 조성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연말 바자회&경매'를 통해 47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장애인 자립지원과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에 쓰인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유한양행 본사, 공장 및 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바자회에서는 해피홈 파워캡슐 세탁세제, 유한락스, 웰니스 반려견 사료 등 자사제품과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 생활용품, 잡화 등이 판매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매에는 임직원이 기부한 향수, 주류, 장신구 등 애장품과 자사 광고모델이 기부한 의류, 싸인스

포츠 용품 등이 나왔다.

유한양행은 이처럼 자원 재사용에 중점을 둔 바자회와 경매를 통해 임직원들과 함께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유한양행이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바자회&경매에서 누적한 기부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유한양행은 올해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마스텐투자운용 ◇부대표△박경배 △이태경 △김대원 ◇전무△조장희 ◇상무△박대규 △성연석 △김희준 △도영완 △김재관

**부음**

- ▲나만길 씨 별세, 나용환(의정부시의회 홍보팀장)씨 부친상 = 7일, 전남 강진 산림조합추모관 1분향식, 발인 9일. 061-430-5444
- ▲최명자씨 별세, 윤종화(OBS경인TV 보도국 차장)씨 외조모상 = 6일, 수원 중앙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031-231-8888

## 한국전력, 안중은 경영관리본부장 임명

"경영정상화 이끌 책임자"

한국전력은 지난 6일 오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안중은(사진)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은 대구 덕원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한전에 입사해 대구본부 포항지사장, 노사협력처장, 비서실



장, 상생협력본부장, 경영관리부사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한편 관계자는 "안중은 경영관리본부장은 조직·인사관리, 정책조정 및 노사관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전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롯데마트·슈퍼 'ZRT 3기' 본격 활동**

롯데마트·슈퍼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대학생 싱크탱크 프로그램 'ZRT 3기'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ZRT'는 Z세대 라운드 테이블의 약자로, Z세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에는 총 16명의 대학생이 4인 1팀으로 참여한다.

롯데마트·슈퍼에 따르면, 'ZRT 3기'는 자체 상품 브랜드(PB) '오늘 좋은'과 '요리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광고 촬영, 신상품 제안, 인공지능(AI) 시스템 활용 등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우수 프로젝트는 ZRT 활동 종료 후 실제 현업에 적용할 기회도 부여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죽음의 섬



홍경안 역  
시시일각

스위스 태생의 상징주의 작가 아놀드 뵘클린(Arnold Böcklin)이 그린 '죽음의 섬'(Isle of the Dead, 1880) 중앙에는 명암의 극한 대비를 이루는 암벽의 섬이 있다. 흡사 거대한 무덤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이 섬에는 영생과 애도를 의미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음산한 기운을 내뿜은 채 빼곡하게 서 있고, 초월적 평온의 바다 위엔 작은 배 한척이 놓여 있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뱃사공 카론(Charon)일까. 뒷모습의 사공은 유령마냥 하얀색 천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과 흰 포로 덮인 관을 싣고 섬을 향해 노를 젓고 있다. 섬은 깊고 깊은 죽음 이후의 세계. 육신의 아픔도 정신적 괴로움도 없다. 사공은 안식의 세계에 망자를 내려놓을 것이다.

'죽음의 섬'의 주제는 '죽음'이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뇌염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뵘클린의 자녀 14명 중 여덟 명이 전염병과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작가 본인도 열병과 뇌졸중에 걸려 사경을 헤매

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그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

뵘클린 점차 죽음에 익숙해졌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해골이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묘사된 '자화상'(Self-Portrait, 1872)은 죽음을 안고 가야 할 존재로서의 자신을 표현한 작품이다.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성모를 그린 '피에타'(1885)에는 떠나보낸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비통함이 담겨 있다.

죽음은 자식을 잃은 후 심연에 들었던 그였기에 표현할 수 있는 세계였다. 그의 유력 후원자가 작업실을 방문한 후원래는 없었던 배와 여인, 그리고 흰 포로 덮인 관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에도 기꺼이 수락할 수 있었던 건 급성 감염 질환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그녀의 사연에 공감해서였다.

이처럼 그의 그림에는 죽음이 스며있다. 그리고 죽음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이후 제작된 '죽음의 섬'은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그중에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와 히틀러(Adolf Hitler)도 있다.

히틀러는 뵘클린의 그림을 다수 소장할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1886년 까지 제작된 '죽음의 섬' 다섯 가지 버전

중 세 번째 버전(1883)을 소장하기까지 했다. 히틀러가 만난 적도 없는 뵘클린에게 폭 빠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가가 되려 했던 젊은 시절의 꿈과 죽음과 영속성에 대한 집착, 나치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미지 조작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저 그랬던 무명의 화가를 일약 스타로 만든 '죽음의 섬'은 송고미를 완벽히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송고미는 인간이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한함, 거대한, 초월적인 힘과 맞닥뜨릴 때 발생한다. 자연이나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불안한 감정 등도 그중 일부다. 죽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언젠가 될지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의 사유처럼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멸의 욕망만 제거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뵘클린이 말년에 발표한 '생명의 섬'(Isle of Life, 1888)을 통해 죽음의 반대편에서 '생의 환희'를 찬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것이 비록 잘나에 불과할지라도. /미술평론가

# 긴 전쟁에 장사없다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손자병법에 교지불여졸속(巧遲不如拙速)이란 말이 있다. 병법의 작전편에 나오는 용병술과 관련한 용어다. '교지'는 전쟁에서 교묘한 전략만 따지다가 때를 놓치는 것을 말하고, '졸속'은 전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속전속결하는 것을 말한다. 뛰어난지만 늦는 사람보다, 미흡해도 빠른사람이 낫다는 의미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않는 것 같다"며 "새로운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게임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들에 의해 빠르게 정치시스템이 작동하고, 유통성 공급 대책 등으로 경제시스템이 운영되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는 한달 만에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최 권한대행도 현재 헌법재판관을 협의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 압박이 거세진 상태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낮췄다. 주요 IB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한달전보다 0.1%포인트 낮은 1.7%로 전망했다. 정치적 문제가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최 권한대행이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어쩌면 여야가 협의해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박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보왔다. 여야가 합의하는 데 걸리는 긴 시간을.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이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했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교지불여졸속을 강조한 이유는 딱 하나다. 전쟁이 길어지면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 피해도 커질 수 있어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것이다. 정치문제가 경제로 이어져 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를 안정화 시킨 이후에 물어도 늦지 않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8일 (음 12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부부간에 다투어봤자 둘 다 손해. 48년생 탐구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60년생 넓은 마음과 아량이 필요. 72년생 남보다 나은 길을 가려면 피가 아니라 건강이 우선이다. 84년생 주변 사람의 조연으로 어려움을 극복.



37년생 걱정만 하고 해결은 못 한다. 49년생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61년생 문서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73년생 밥이 보약이니 끼니 잘 챙겨먹도록. 85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새삼 이해된다.



38년생 물은 고이면 썩기 시작. 50년생 간벌의 차이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2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오니 주의. 74년생 자신의 재주를 너무 과대평가 하지 않도록. 86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니 거절 것이 없다.



39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51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자. 63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75년생 앓느니 죽을 것 같은 사랑은 하지 않도록. 87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40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52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수 있다. 64년생 번뇌가 많으니 명상을 추천. 76년생 통과 제리의 인연인 듯. 88년생 자신의 재능이 두드러지지 공부를 아끼지 마라.



41년생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53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5년생 휴대폰 분실을 조심. 77년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지만, 내색을 안 할 뿐이다. 89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42년생 힘들어도 다시 운동으로 권리를 시작하자.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66년생 부지런하거나 좋은 습관은 누구에게나 자신. 78년생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90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43년생 상대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55년생 불처럼 뜨거운 기운이 구설수가 된다. 67년생 첫 만남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라. 79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 91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새벽 비가 내린다.



44년생 배우자가 의심되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도해보라. 56년생 젊어서 공부 부족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 68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바로 내 고기이다. 80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사. 92년생 배우자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45년생 게으름을 청산하고 변화를. 57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빛을 갈려온다. 69년생 이빨 빠진 호랑이 심정을 알 것 같다. 81년생 남에게 친절할 것은 예의이지 비굴한 게 아님. 93년생 워런 버핏만이 아니라 작지만 성공할 인생길로 가보자.



46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8년생 민망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 도전. 70년생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니 희망적. 82년생 정해진 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세상의 분명한 진리. 94년생 운명은 스스로가 갖고 태어난다.



47년생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도 받는다. 59년생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 71년생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니 내 마음이 풍요하다. 83년생 이성 문제로 좌고우면 하지 않도록 해야. 95년생 여름의 포도송이처럼 좋은 일만 잇기를 바라지 말 것.

# 김상회의四季

귀족의 탄생(2)



옛날엔 많은 부를 소유한 자가 신분을 살 수 있었고,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정략결혼 등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해왔다. 세계적으로 전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무너진 지 따져보면 채 백 년도 되지 않지만 무슨 왕가니 귀족이니 하는 개념이 유럽에는 아직도 이어진다. 조선 시대 말기에 양반첩을 돈을 주고 산 얘기가 술하게 보인다.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를 두고 공주님, 왕자님 하는 호칭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높은 신분에 대해 동경을 느낄 수가 있다. 시민혁명으로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내린 전력이 있다 해도 신분 상승에 욕구는 본능적이다. 근세가 들어 제국주의가 팽배하면서 유럽의 귀족들은 과거의 부와 명예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 틈새를 밀고 들어온 것은 신흥 부자들이었다. 권위주의 귀족을 끌어내리려 하면서도 속마음은 동경했다. 자녀에게만은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방법은 귀족들과의 결혼이다. 몇 년 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국의 '다운튼 애비'라는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미국 뉴욕의 신흥부자집 딸이 영국 런던에 건너가 백작 가문의 자제와 결혼한다. 당시 영지가 넘어갈 지경에 처했던 백작가는 신부의 지참금 덕택에 위기를 넘긴다. 정경유착도 이러한 공식 아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드라마 내에서의 백작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서히 몰락해가는 유럽 귀족들의 보편적 실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서양의 귀족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불리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다. 양반입네 하면서 명분과 체면만 중요시하는 위선적인 면은 달해 보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3				8
			6			9		
	5			1	8			
8		4		9				2 6
		5 4		1 8				
9 3			2		6			1
			8 4					6
		7			6			
5			2		9			7

7	1	3	6			4	9	
3		9			1			
	6				7 9			
1				3				
4			7	2				1
				5				9
		2 5					1	
			4			5	6	
2 7				6 1	8 4			

2	8	7	6	8	2	1	9	9
6	8	2	9	8	9	2	1	7
9	9	1	2	7	8	2	6	8
1	9	9	7	2	8	8	6	6
8	6	8	1	9	7	9	2	2
9	2	8	9	6	1	7	2	8
7	7	2	8	1	8	6	9	9
2	2	6	2	9	9	8	8	1
8	1	9	8	2	6	9	7	2

7	8	1	9	6	8	2	2	9
9	2	9	8	2	7	1	8	6
2	1	8	6	8	9	2	7	9
6	7	2	8	9	1	9	8	2
1	8	8	2	9	2	9	6	7
9	9	2	7	8	6	8	2	1
8	9	6	2	1	2	7	9	8
2	2	9	1	7	8	6	9	8
8	6	7	9	2	9	8	1	2



# 생활가전사 “올사년 경영 키워드 ‘혁신·성장·인재·글로벌’”

코웨이 방준혁 의장  
“‘NEW COWAY’ 전략 가속화”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제2 창업 한다는 각오로 노력”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  
“글로벌 시장 적극 공략할 것”

SK매직 김완성 대표  
“수펙스 정신 무장하고 역량 결집”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정휘동  
청호그룹 회장



김완성  
SK매직 대표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 생활가전사들이 2025년을 맞아 ‘혁신’과 ‘성장’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올해가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보릿고개에 이를 것을 우려하며 ‘사람’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일 개별기업들의 신년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코웨이는 올해 이례적으로 대주주인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사진)이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방준혁 의장은 코웨이 시무식에서 “2020년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후

‘NEW COWAY’ 전략 일환으로 ▲혁신 제품개발 ▲비렉스 등으로의 신사업 확장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등의 혁신적 시도들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이런 기조와 방향성에 스피드를 더욱 가속화해 성장세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코웨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올해부터 주주환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그룹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다. 1985년 교원그룹의 모태가 된 ㈜교원을 창립한 장평순 회장은 올사년 새해를 맞아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토, 전 가정에서 그룹의 주요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듀(EDU)화’, ‘구몬화’, ‘웰스(Wells)화’를 통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성장을 하자고 독려했다. 장 회장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막강한 인력을 갖추고 전성기 우리 회사처럼 열심히 노력해 전설적인 기록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

정기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계정수를 기록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에선 창사 이후 최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순항했다. 유럽에선 자체 브랜드도 설립했다.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은 올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자세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각자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고, 조직 내 열린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나의 잘못부터 찾아달라’는 자세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을 더욱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정 회장은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혁신적인 제품과 로열티 서비스를 통해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SK매직은 지난해 ‘AI 웰니스 플랫폼(Wellness Platform) 회사’를 지향하며 적자 심화 가전사업 정리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영업 관리 체계 고도화, 전자 리스크 관리 체계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했다. 김완성 SK매직 대표(사진)는 “올해는 ‘AI 웰니스 플랫폼회사’라는 비전 하에 ‘1등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SK매직 전 구성원이 패기와 VWBE(자발적·의욕적 두뇌 활용)를 통한 ‘수펙스(SUPEX)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역량을 결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장 기대를 넘어선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한경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류진 회장 “성장사다리 복원 힘쓸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손을 잡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류진 회장과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최근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소상공인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과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경협

류진 한경협 회장은 “최근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소상공인들

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 한경협 첫 사업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결정했다”면서 “소상공인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류진 회장, 박성호 이사장은 양측 관계자들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우리시장에서 신선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소상공인 경기 살리기에 힘을 보탤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비데·공청기 등 ‘CES 혁신상’ 3관왕

기술력, 혁신성 인정 받아

코웨이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을 앞두고 발표한 ‘CES 혁신상’에서 3관왕에 오르며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 시간) 공개한 CES 2025 혁신상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비데 ▲자동 필터 클리닝 공기청정기 ▲개인 공간 맞춤형 공기청정기 등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홈어플라이언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데’는 클리닝 기능을 넘어 비데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 제

품이다. ‘자동 필터 클리닝 공기청정기’는 필터 청소와 교체가 필요 없는 셀프 클리닝 기술을 탑재한 제품으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지속가능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개인 공간 맞춤형 공기청정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간에 최적화된 에어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스마트홈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 2016년에 CES 혁신상을 처음 수상한 이후 올해까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스마트매트리스, 안마베드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28개의 혁신상을 받으며 선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 팅크웨어, 아이나비 ‘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부문 1위  
팅크웨어가 한국소비자포럼 주관의 ‘2025퍼스트브랜드대상’에서 내비게이션 부문 21년 연속, 블랙박스 부문 13년 연속 1위로 ‘아이나비’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7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블랙박스 부문에서 13년 연속 선정된 ‘아이나비’는

고객 중심의 선도적인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비전 A.I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 PLUS’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이나비 QXD1 플러스’는 50만 건 이상의 주행 데이터

를 딥 러닝으로 학습해 기존보다 정확하게 객체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촬영한다. 내비게이션 부문에선 21년 연속 1위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입지를 굳게 다졌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은 팅크웨어의 28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극대화한 증강현실 솔루션과 보행자 인식 솔루션 등 새로운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으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0  
1월 8일 (수) 음력 : 12월 9일  
수도권 날씨 -6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2/-3, 동두천 -10/-2, 가평 -11/-2, 파주 -12/-3, 서울 -6/-2, 양평 -8/-1, 인천 -5/-2, 수원 -5/-2, 용인 -5/-2, 평택 -6/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中 티베트 지진으로 에베레스트산 등반로 일시 폐쇄  
▲ 티베트 강진 사망자 53명... 피해 더 늘어날 듯 /사진 뉴스시스

▲ 한국, 아시아 최초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EU “합류 환영”  
▲ 도요타 “로켓 연구 중”... 스타트업에 70억엔 투자도

▲ “인니, 브릭스 정회원국 가입”... 중국도 “환영”  
▲ 中 연예인 태국·미얀마 접경지역서 실종... 남치 추정





K-치킨  
글로벌 입맛  
사로잡는다  
L1



Life

‘뉴 엔씨’  
장르 다변화 등  
도전·혁신 새 장  
L2



# 텃밭 가꾸고, 담소 나누고... “명산 아래서 휴식 즐겨요”



1. 나들목공원. 2. 관악산 으뜸공원. 3. 관악산 폭포쉼터 내 정자. 4. 폭포쉼터. /김현정 기자

## 되살아나는 서울 관악구 ‘관악산 주변 쉼터’

서울의 외사산 중 하나인 관악산은 서남부 권역의 명산으로 꼽힌다. 관악산 정상은 큰바위기둥을 세워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그 모습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고 다니던 ‘갓’을 닮아 산명이 ‘갓 관(冠)’ 자에 ‘큰 산 약(嶽)’ 자를 쓰는 ‘관악산’이 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역사답사기’에 따르면, ‘약’ 자체가 ‘산’을 뜻해 예전엔 ‘관악’으로 일컬어졌다. 과거 관악산과 함께 경기 5악에 포함된 ▲개성의 송악산 ▲가평의 화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모두 의미가 중복돼 ‘약’ 뒤에 ‘산’을 덧붙이지 않았으나, 오늘날엔 전부 뒤에 ‘산’ 자를 붙여 부르게 된 것을 통해 국어생활의 변화상을 알 수 있게 됐다.

### ◆생태 학습장 역할 톡톡히 하는 ‘나들목공원’

지난 6일 오후 관악산 앞에 자리한 소공원 2곳과 폭포쉼터를 방문했다. 경전철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로 나와 나들목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5분 정도면 휘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크기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원 한켠에 심어진 큰 소나무 4그루였다. 나무 기둥이 전봇대 굵기 3분의 1 정도로 얇아 키다리 뼈에로를 연상시켰다.

과거 이곳은 고물상이 밀집해있던 부지였다. 주변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한다는 주민 민원을 계기로 관악구는 2009년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해 땅을 사들였다. 구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을 설득해 2013년 고물상 부지 정리를 마치고, 서울시로부터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원을 만들어 이듬해 11월 ‘나들목공원’을 개원했다.

공원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관악산을 드나드는 길목’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공원 한가운데는 도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텃밭이 마련됐다. 관악구청이 삼성고등학교와 협력해 운영 중인 교육용 텃밭으로, 사방에 무단 침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무단 침입 신고 후 수사 중입니다. CCTV 확보’, ‘경고! 무단 침입시 고발 조치합니다’ 등의 살벌한 경계 문구들을 보며, 우리가 전보다 한층 더 각박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와 닿아 입맛이 썩었다.

관용 없는 사회가 문제인 걸까,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일까. 어떤 이는 ‘길가다 발견한 방울토마토가 신기해 기념으로 한두 개 따갔을 수 있지’라며 경고문을 고깝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일 년을 꼬박 고생해 기른 작물을 도둑이 훔쳐갔다’고 분노하면서 오랜 시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텃밭을 지나쳐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 ◆보행 약자도 즐길 수 있는 ‘관악산 으뜸공원·폭포쉼터’

나들목공원의 맞은편에 위치한 관악산 으뜸공원은 최근에 문을 연 주민 휴식처다. 공원이라고 해서 거대한 녹지가 또 하나 생겼구나 하는 기대감을 안고 방문했는데 실망이 컸다. 녹색 식물은 보이지 않고 회색 시멘트 벽돌만 바닥에 잔뜩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구는 낡은 휴게소와 지하 주차장을 허문 자리에 관악산 으뜸공원을 만들어 작년 8월 개장했다. 공원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960㎡ 크기의 휴게소와 대형 광장을 갖췄다. 공원 조성에 101억원이 투입됐다고 하는 데 볼거리가 정말 없어서 ‘이 돈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허벌판 앞에 건물 한 채가 웅덩이처럼 홀로 서 있어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허리가 굽은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엉덩이가 बे기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느릿느릿 산책했다. 어르신들의 뒤를 따라 관악산 폭포쉼터로 이동했다. 안타깝게도 동절기엔 폭포가 가동되지 않아 시원한 물줄기를 구경할 순 없었다. 쉼터에는 정자와 운동기구 몇 개가 설치됐다. 하체 근육 풀기, 오금 펴기 등의 운동기구에는 ‘위험 안전제일’이라는 빨간색 글씨가 적힌 테

이프가 빙 둘러졌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금하는 안내문이 붙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정자로 향했다.

정자에는 별도의 바닥 없이 벤치만 설치됐다. 코로나 이후 이러한 형태의 정자가 특히 더 많이 만들어졌다.

‘신발을 벗고 정자 안으로 들어가 동네 주민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이제 옛 추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든 것도 잠시, 희한한 물건을 발견해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앉아서 다리 마사지를 할 수 있게 벤치에 달아놓은 롤러였다. 옥외용 롤러 마사지는 저항 2개와 전선이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생겼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롤러에 밀착시킨 상태로 다리를 움직이며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복근에 힘을 주며 자전거 페달을 밟듯 번갈아 종아리를 문지르면 된다.

정자에 앉아 옥외용 롤러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고 일어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광장으로 나왔다. 나들목공원에서부터 으뜸공원을 거쳐 폭포쉼터까지는 전 구역이 다 평지로 이뤄져 있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명산 ‘관악산’ 주변에 쉼터 조성 고물상 밀집 부지, ‘나들목공원’으로 체험형 친환경 텃밭 등 생태학습장도

### 낡은 휴게소 자리에 ‘으뜸공원’ 개장 폭포쉼터, 벤치 정자 등 주민 휴식처로

## 메트로 한줄뉴스



▲뮤지컬 ‘돈 주왕’ 프렌치 오리지널, 19년 만에 내한  
▲서울관·과천관 상설전 부활...이건희컬렉션 미국 순회전 /사진 뉴스스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유인촌 장관 경주 방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전 정몽규 후보, 50억원 기부 선언

▲NC 특급 유망주 신영우, 팔꿈치 통증...호주리그 도중 귀국  
▲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 위법, 진행해선 안돼”...가처분 인용